

바로 지금, 여행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KTX 2024.05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 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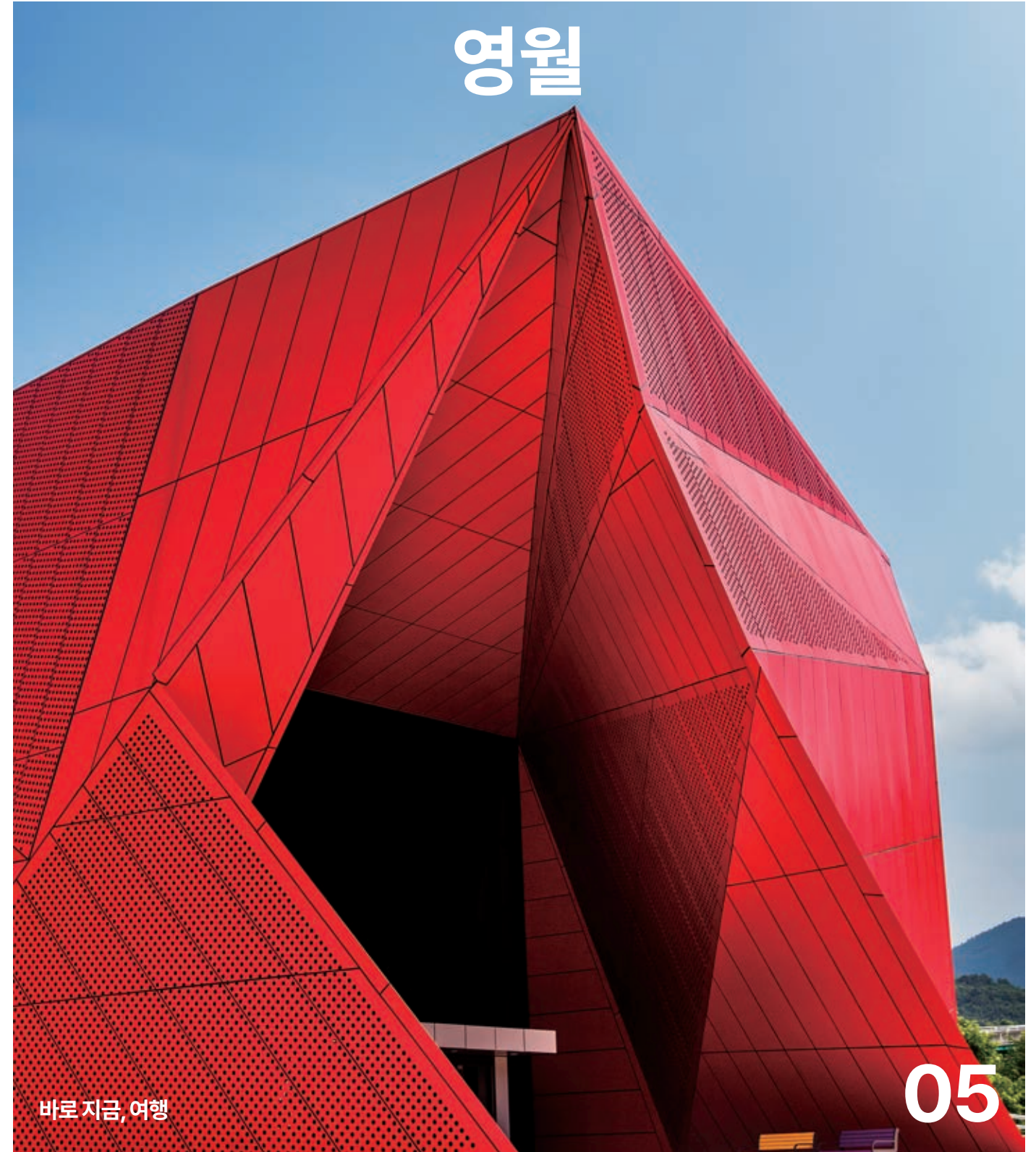
영월 운탄고도, 삶을 건다

광고 문의 02-799-9175



선비처럼 영주 나들이

# 영월



바로 지금, 여행

# 05

영월 운탄고도, 삶을 건다 | 수장고로 떠나는 모험,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서울 창신동 골목을 오르며 본 것



ARC'TERYX

PROPEL YOUR  
MOUNTAIN RU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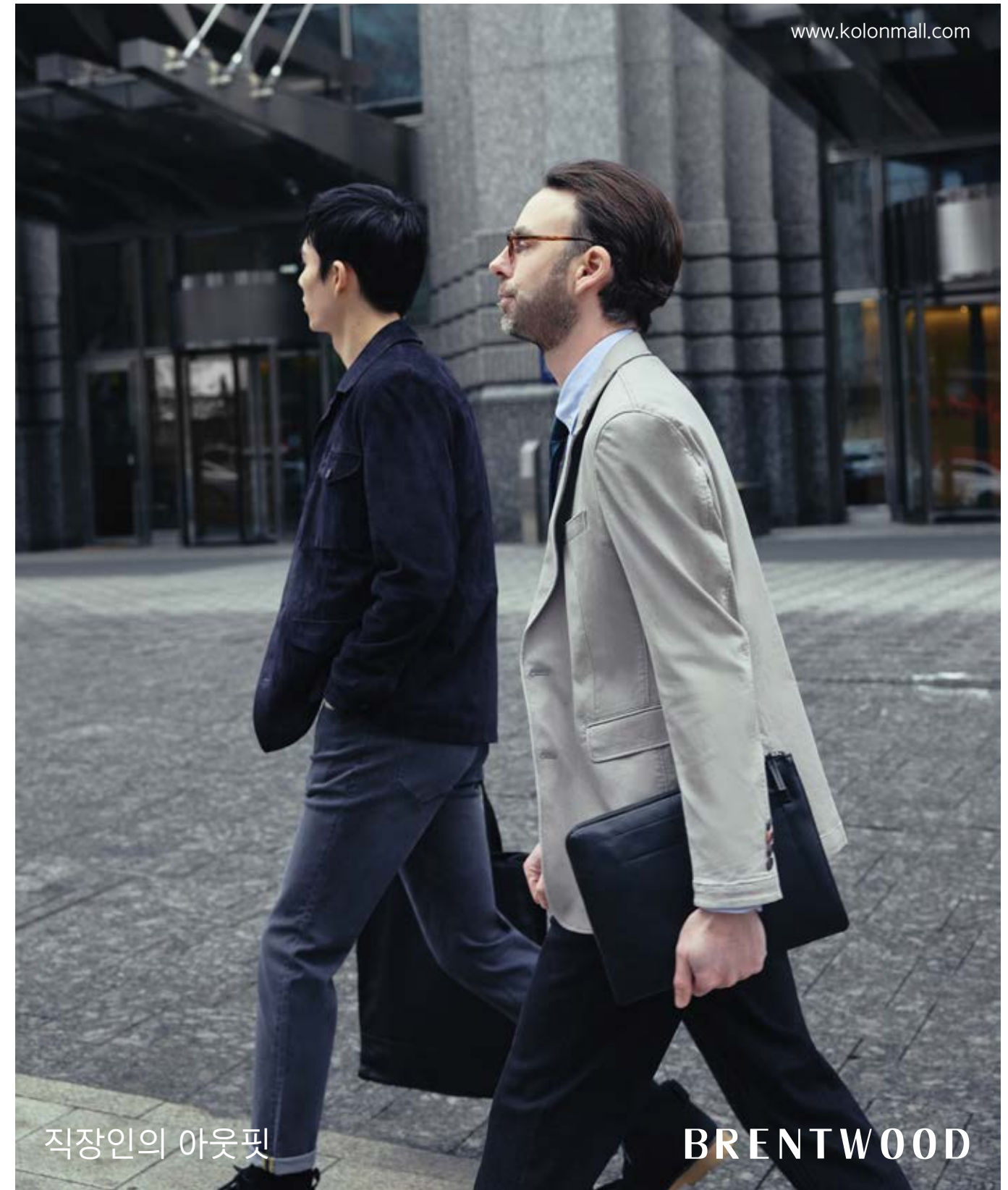
THE SYLAN SHOE

Rockered for speed in rugged  
vertical terrain.



# CONTENTS

2024.05



브렌우드 대리점 개설 문의 : 02)3677-7209

코요롱인더스트리(주) FnC부문

경기·인천 시흥점 / 화성 봉담 트레보점 / 안양 플러스아울렛점 / 용인 죽전점 / 인천 엘리웨이 / 안양 명학점 대전·충청 대전 송촌점 / 세종 마크원 예비뉴점 / 예산 내포점 / 서산 중앙점 전라·제주 전주 평화점 전주 인후점 / 전주 메가월드점 / 군산점 / 광주 첨단점 / 광주 세정점 / 목포 하당점 / 여수 여천점 / 신제주 노형점 부산·경상 부산 대청점 / 대구 칠곡점 / 대구 호림점 / 경상점 / 김천 조이코오롱

2024.05



**010**

**세계 도시 이야기**

5월, 홍콩 청차우섬에서 달콤한 빵으로 영혼을 달래고 평안을 비는 축제를 연다.

**012**

**그곳에 가면**

부처님 오신 날, 일상을 부처님과 함께할 개성 만점 곳을 모았다.

**020**

**에디터 자유 여행**

박물관 수장고는 어떻게 생겼을까?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를 탐험했다.

**024**

**맛집 탐방**

고즈넉한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독특하고 맛깔스러운 퓨전 한식을 맛봤다.

**030**

**이런 여행 어때요**

밀양아리랑대축제의 흥을 좇아 경남 밀양으로 봄 소풍을 떠난다.

**064**

**기차 타고**

봄벌을 품은 경북 영주를 거닐며 선비 문화와 살아 있는 역사를 마주했다.

**072**

**이 계절 이 여행**

예술과 봉제 산업의 역사가 깃든 서울 창신동. 좁은 골목 사이로 흐르는 이야기를 따라갔다.

**080**

**작가의 방**

몸을 낮추어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예술가, 우리 시대의 경청자 천경우를 만났다.



**KORAIL INFORMATION**

**098**

**코레일 소식**

**106**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08**

**열차 이용 안내**

**110**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들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AHILO

들어가는 글



이 지면을 만들면서 의식처럼 되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독자 여러분이 기차 여행자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만나고 경험하든 기차와 여행이 주는 기쁨을 글과 사진, 디자인과 기획으로 표현하려 노력합니다. 강원도 탄광 역사를 아우르는 운탄고도 영월 구간을 걸으며 청령포역과 석항역을 발견하고 뿌듯했던 이유입니다. 기사에는 미처 쓰지 못했지만, '작가의 방' 칼럼에서 인터뷰한 천경우 작가님도 기차 여행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작가님은 누구보다 철도를 사랑하는 여행자였습니다. 인도 뭄바이역을 오가는 익명의 여행자를 참여자이자 조력자로 초대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 'Happy Journey(해피 저니)'와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 둘레 100미터의 타원형 트랙을 설치한 뒤 다양한 참여자가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 193킬로미터를 이어 달리도록 고안한 프로젝트 '달리기'를 선보이며 철도가 자아내는 만남과 교감의 풍경을 담아 오셨지요. 인도 철도의 차내 방송은 이렇게 끝을 맺는답니다. "We wish you a happy journey(당신의 행복한 여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동과 발견의 기쁨이 가득한 기차 여행 되시기를.

<KTX매거진> 부편집장 강은주

# KTX

바로 지금, 여행  
MAY 2024

2024년 5월호 제21권 제5호 통권 제239호  
2024년 5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남혜림 nhr@seoulmedia.co.kr  
인턴 기자 김수아 ksau@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 서울우유답게 A2우유에 플러스+까지



플러스1.  
체세포수1등급  
세균수1A

A2  
전용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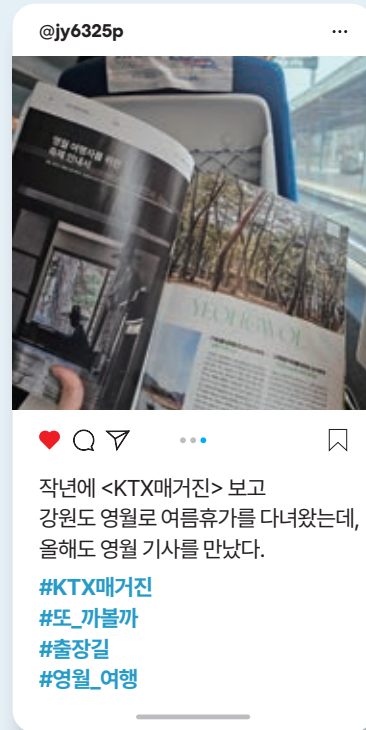
플러스2.  
EFL공법

100%  
A2우유



#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azin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수암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세븐데이즈클린 인슐루션'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가르시니아카ம்பोज이 추출물과 비타민 C를 함유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물에 녹여 섭취하는 제품이며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좋습니다.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주)모나미 고객센터 080-022-0153 | 홈페이지 www.monami.com



Plus Pen 3000  
PRIME  
유성볼펜으로 거듭나다

프러스펜 3000 프라임은 모나미의 프러스펜 3000 수성 디자인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유성볼펜입니다

# BUN



# CARNIVAL


## 청차우섬이 선물하는 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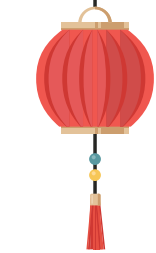
거대한 빵탑이 홍콩 청차우섬에 우뚝 선다. 희생된 영혼을 달래는 것에서 유래한 빵 축제가 다가온다는 신호다.

찜기에서 먹음직스러운 흰 빵이 줄지어 나온다. 동그란 표면에 곧 빨간 글자가 찍힌다. '平安(평안)' 이맘때 홍콩 청차우섬 곳곳에서는 무사를 비는 마음이 담긴 빵을 만든다. 청차우섬은 과거 해적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다. 고기를 잡으며 생활을 이어가던 섬 주민들은 그들에게 종종 재산을 약탈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돌아오면의 수호신이자 북방의 왕인 팍타이 신이 나타나 전염병을 없앴고, 섬에 평화를 가져왔다 한다. 이 이야기에서 기원한 것이 바로 청차우 빵 축제다.

해마다 음력 4월 5일부터 9일까지 팍타이 사원 일대에서 열리는 축제의 상징은 붉은 글자가 인상적인 평안빵이다. 참깨, 팥 등으로 속을 채운 달콤한 빵이 희생된 넋을 달랠다고 믿어 그들에게 바친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축제는 평안빵을 만들고 이웃과 나눠 먹는 행사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 마을 사람들이 악령을 쫓거나 겁주기 위해 신처럼 분장하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던 데서 비롯한

피우식 퍼레이드가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전통 의상이나 신 복장으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높은 장대에 올라 행진하고, 동동 울리는 북소리에 맞추어 사자춤, 용춤을 추는 이들이 거리를 메운다.

하이라이트는 10여 미터 빵탑에 오르는 롤빵 스크램블링 대회. 축제 시작 전부터 예선을 거쳐 인원을 선발하고 마지막 날 결승전을 치르는데, 참가자들이 모형 빵을 쌓아 만든 번 타워에 기어 올라가 경쟁을 벌인다. 물론 모든 참가자는 사전에 등반 교육을 받고 안전 장비를 착용한다. 위쪽에 놓인 빵일수록 점수가 높아 고지를 선점한 후 빠르게 빵을 챙기는 것이 관건. 섬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대회 우승을 제일가는 영광으로 여기니, 그들에게 이 축제가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간다. 지금도 청차우섬은 여행자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하다. 온화한 날, 바다를 보며 평안빵을 한 입 베어 무는 상상을 한다. 분명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이겠다. 



청차우섬은 홍콩 본섬과 배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섬 중심의 팍타이 사원, 동안 해변, 청포차이 동굴 등 볼거리가 풍부하며 주민이 잡은 신선한 해산물도 맛볼 수 있다.

사진 제공 홍콩관광청



SONO  
HOTELS & RESORTS



【솔비치 남해】조감도 2025년 오픈 예정



2023.11 진행상황

## 2024년 신규 회원권 '소노러스' 상품 출시!

## 소노호텔앤리조트 뉴멤버십 회원모집!

글로벌 체인 리조트로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 뉴멤버십 '소노러스' 회원을 모집한다. 뉴멤버십 '소노러스'는 대한민국 멤버십 최초로 가족회원이 입회할 경우 직계가족에 한하여 무제한 회원등재가 가능한 상품이다. 일일불 납부 직후 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고, 객실 및 부대시설 회원 기본 할인 혜택과 입회금의 50%를 '사용차감 입회금'으로 사용하여 추가할인까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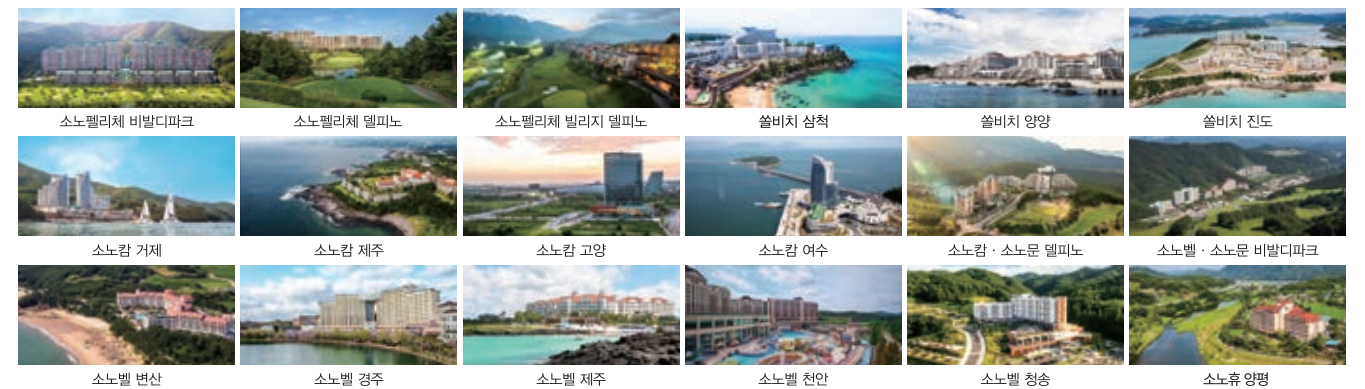
전국 16곳 소노호텔앤리조트의 객실을 20년동안 회원요금의 20% 할인(사용차감 입회금 사용) 및 다양한 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션월드, 승마, 골프, 스키 등 소노호텔앤리조트의 레저와 스포츠 시설을 소노러스 회원권 하나로 회원 기본할인과 입회금 사용시 추가할인을 받아 최대 약 60% 할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법인 명의로도 입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및 손비처리가 가능하고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는 타업체와 차별화된 정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레저컨설턴트들이 존재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이용 시 불편함이나 번거로움이 없도록 각 회원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최초 계약에서부터 예약관리까지 철저하게 1:1 회원 전담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측은 "회원권 구입 후 사용하면서 성수기 리조트 예약이나 다양한 편의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2024년 '솔비치 남해'가 첫 소노러스 사업장으로 그랜드 오픈 할 예정이며, 2025년 '솔비치 남해'가 완공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입회안내 책자를 배송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 모두 함께 '부처 헌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 열기에 힘입어 개성 있는 굿즈가 계속 출시된다.

### (붓띠)

#### 1—약사부처님 무소음시계

째깍째깍, 초침 소리 없이 시각을 알려 주는 부처의 표정이 온화하다.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약사여래 부처를 재해석한 그림이다. 두 손으로 약 그릇을 받쳐 든 모습이 아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지름 30센티미터 초록빛 원을 벽에 걸어 두면 집안이 화사해질 뿐 아니라 눈과 정신도 맑아지겠다.

문의 @buddhi\_goods

### (디앤에프컴퍼니)

#### 2—동자승향꽃이

큰 모양 향에 불을 붙이고 잠시 기다린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곧 연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장관이 눈앞에 펼쳐지고, 진귀한 풍경을 영상으로 담기 위해 절로 휴대전화를 들어 올릴 터. 공간에 퍼지는 인센스 향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불명'의 '불'이 불교를 의미했던가. 다른 생각 없이 오로지 연기의 흐름만 따라가 보자.

문의 032-508-2325

### (아미울)

#### 3—합장 불교 개구리 3종 세트

합장 개구리, '멍 때리는' 개구리, 엷든 개구리. 표정과 자세가 다른 세 개구리의 앙증맞은 자태에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방문객이 열광했다. 특히 연잎 접시 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는 합장 개구리는 초롱초롱한 눈과 앙다문 입에서 기개가 느껴진다. 그와 짧은 눈맞춤으로 하루를 시작해 그와 좋은 것 같다.

문의 @amier\_korea

### (마붓)

#### 4—약사부처님 보호등

유튜브 채널 '마음을 그리는 붓'을 운영하는 장세경 작가의 불화로 디자인한 제품이다. 청정한 푸른빛과 따뜻한 황금빛이 주변을 비추는데,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밝기 조절도 가능하다. 어둠이 무서워도 걱정할 필요 없다. 명상이나 기도가 필요한 순간 은은한 빛이 곁을 지켜 준다. 그림 속 달과 해가 낮이나 밤이나 자비롭게 보살핀다.

문의 @mabudh\_shop

# Buddhist goods



# 연등회

YEON DEUNG HOE 燃燈會

2024 5.10.~12.

### 전통등전시회

4.24.(수) ~ 5.15.(수) 청계천, 열린송현녹지광장, 광화문광장, 조계사, 봉은사

### 연등행렬

5.11.(토) 19:00 흥인지문 ~ 종각

### 대동한마당

5.11.(토) 21:30 종각사거리

### 전통문화마당, 공연마당

5.12.(일) 11:00 ~ 18:00 조계사 앞길







02

##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파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1.라운지 수 02.노천탕 03.객실 04.실내탕  
05.객실 정원 06.카페 07.만이 차림  
08.만물(충북의 화반) 09.숙회(오늘의 제철 숙회)  
10.운새미로 11.알천 : 한우 구이와 한방 수비드  
삼겹살 12.조식 : 13첩 반상

###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사가 17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36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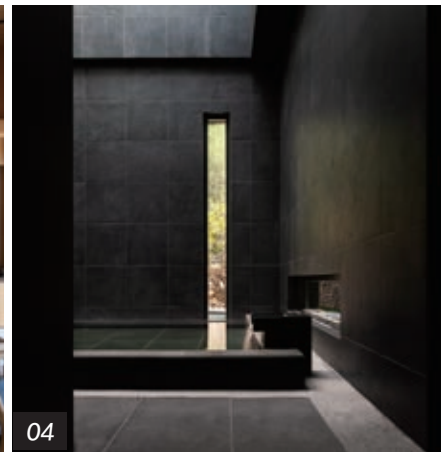
#### 직원 채용 공고

- 객실팀(프런트)
- 접객서비스팀(F&B)
- 주방 Line cook

자세한 사항은 사람인 잡코리아  
채용 공고 확인하시거나,  
전화 문의 바랍니다.



03



04



05



06



### 1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07



08



09



10



11



12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온전한 휴식의 정점

유원재의 식사는  
오감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요소로 구성되며,  
온천욕과 자연으로 비워낸 여백을 새로운 가치로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한 온전한 휴식의 여정의 정점입니다.

원재료 본연의 맛이 녹아든 균형 잡힌 요리는  
시각의 아름다움과 미각의 즐거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 하림 견학도 하고, 맛있는 닭고기도 먹고!

Harim Chicken Road Tour | 신선한 닭고기를 만드는 하림의 비밀을 엿보는 오감체험형 프로그램



## 하림 치킨로드 투어를 즐기는 3가지 포인트!

<p><b>보재!</b></p> <p>투어창을 통해 맛있는 닭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p>	<p><b>즐거재!</b></p> <p>전문가가 직접 닭고기를 부위별로 손질하는 발골쇼 감상!</p>	<p><b>맛보재!</b></p> <p>당일 도제한 닭고기 정육(닭다리살) 구이와, 갓 튀긴 다양한 가공제품 시식!</p>
--	--	--



# 하림의 신선한 닭고기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최고의 맛으로 식문화를 선도하며 행복을 나눈다



TIP! 사내 판매장에서 하림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예약방법

운영시간 : 평 일 (오전)10:00 10:15 10:30  
(오후)13:30 13:45 14:00  
토요일 (오전)10:00 10:30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입 장 료 : 무료  
문의사항 : 063-860-2255/2233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14



Harim ChickenRoad  
투어 신청 홈페이지

# 번역가의 손끝에서, 시가 날아오른다

최근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 환상통> 번역본이 한국 작가 최초로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 그 배경에 든든히 자리한 최돈미 번역가에게 조명을 비춰 본다.

## Phantom Pain Wings

또 한 번 김혜순의 이름이 해외 시상식에 올랐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 시 회장 리베카 모건 프랭크는 <날개 환상통>의 영문본 <팬텀 페인 윙스(Phantom Pain Wings)>를 이렇게 소개한다. “가부장제와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슬픔, 개입을 광활하고 본능적인 복 화술로 구현한 놀랍도록 독창적이고 대담한 작품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붙은 수식어만 여럿이다. ‘한국 작가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등 김혜순 시인과 작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보도가 여기저기 한가득이다. 김혜순이라는 시인을 향해 수만 개의 플래시가 터졌고, 한국 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여기서 ‘시 부문 번역본 최초’라는 중요한 키워드에도 주목해야 한다. 베일에 가려진 번역이라는 분야를 향해 작은 날갯짓이 시작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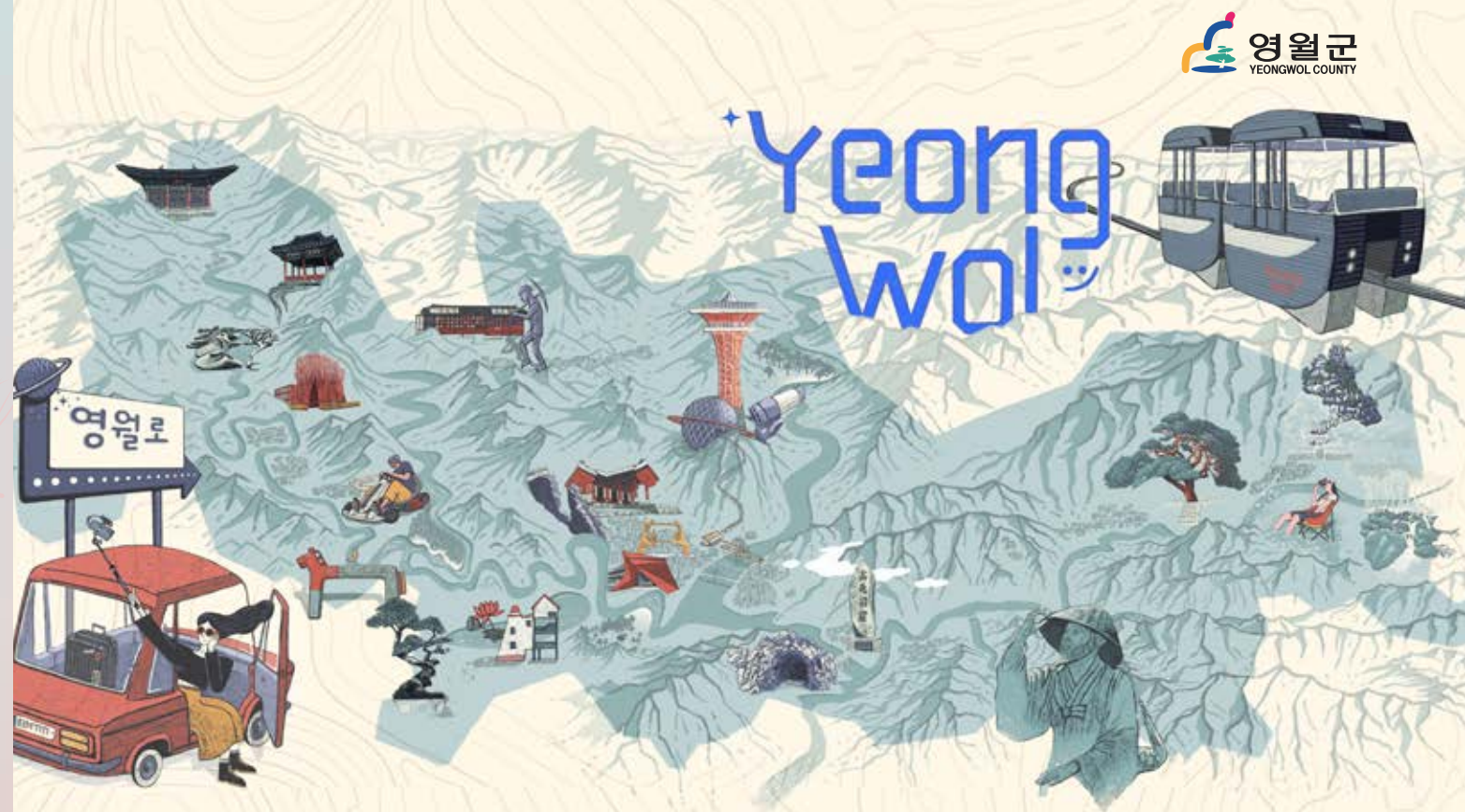
사람들은 문학 장르 중에서도 시를 어렵게 여긴다.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이 어떤 독자에게는 불친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통해 내용을 해석하는 소설과 달리 시는 파편화된 이미지로만 구성할 수 있기에 읽는 사람마다 감상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시는 어떻게 번역하는 걸까. 더군다나 김혜순의 시는 다른 시인들도 입을 모아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일을 훌륭히 해낸 최돈미 번역가의 목소리를 들어 볼 차례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시인이기도 한 최돈미 번역가는 <죽음의 자서전> <슬픔치약 거울크림> <불쌍한 사랑 기계> 등 김혜순 시인의 작품 다수를 영어로 옮기며 오랜 인연을 맺었다. <죽음의 자서전> 영문본은 2019년 캐나다 그리핀 시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한 인터뷰 영상에서 가장 힘들게 번역한 작품으로 최근 수상의 영예를 안은 <날개 환상통>을 꼽았다. 그 이유에서 한국 시 번역의 어려움을 발견한다. 바로 ‘화자의 생략’. 영어는 주체가 뚜렷하지만 한국 시는 화자를 생략하거나 복수의 화자가 등장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명의 목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국 시 번역가를 조명하는 은유 작가의 인

터뷰집 <우리는 순수한 것을 생각했다>에서 이어지는 맥락을 발견했다. 한독 번역가 박술도 비슷한 호소를 한다. 독일어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는데, 한국 시는 화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그는 고민 끝에 이탈리아와 하이픈(-)을 써서 화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찾았다. 여기에 한국과 서구 현대 시의 차이를 언급한다. 한국 현대 시는 기본적으로 산문 형태라 “호흡이나 리듬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이미지와 말투의 미세한 변화로 시적 리듬이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반면 서구 언어로 된 시는 “현대 시라고 해도 발음, 리듬, 라임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덧붙인다.

번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일반 독자들의 오해도 많다. ‘한국어 표현을 그대로 살릴 수 있나?’ 문화권에 따라 쓰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거친 후 그 표현이 사라질 가능성을 제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김이든 시인의 말을 빌려 답하자면 “전 세계 모든 언어에는 모서리가 존재”한다. 그는 2020년 전미번역상을 수상하면서 본인 작품의 경우 번역을 거쳐 새로운 느낌을 얻었다는 말을 남겼다. 단순히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창작의 영역”이라 덧붙였다. 그렇다. 번역은 창조다. <우리는 순수한 것을 생각했다>에서 여러 번역가가 공통적으로 번역은 창조라고 말한다. “무의식에서 오는 창조 행위”(안톤 허), “시를 쓰는 제일 쉬운 방법이 번역”(박술).

번역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최돈미 번역가는 “시의 뜻만 아니라 시의 톤·목소리·리듬을 영어로 다시 살리는 일, 즉 언어의 감각과 경험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요”라고 답했다. 김혜순 시인이 퇴고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로 언급했듯, 그의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듬’이다. 그렇기에 작품이 다른 언어로 바뀌어도 리듬만은 그대로 전해지도록 번역가는 고심했을 테다. 특유의 리듬과 목소리가 영어 문화권 사람에게 전달됐을까. <팬텀 페인 윙스>를 손에 들고 묵독하는 이 옆에서 표정을 살피고 싶다.



# 운탄고도 1330, 영월을 걷다





# PAJU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수장고를 누비는 모험

100만 점 넘는 유물과 자료를 소장한 국립민속박물관이 경기도 파주에 수장고형 박물관을 조성했다. 수장고 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 01

#### 개방형 수장고

빙산의 일각. 박물관은 유물을 고심해서 선별하고 전시장에 내놓지만, 공간의 제약 같은 여러 여건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유물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개된 유물보다 몇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가 수장고에 고이 모셔진 상태. 1976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인류학박물관이 개방형 수장고라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이래 이 흐름이 세계로 퍼졌고, 국립민속박물관도 동참했다. 유물 17만여 점, 아카이브 자료 102만여 점을 보유한 박물관이 파주에 개방형 수장고를 조성한 것이다. 입구에 발을 딛자마자 10미터 넘는 거대한 높이의 수장고 세 개가 시선을 압도한다. 한 점 한 점 전시한 박물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 긴 세월이 걸쳐 같은 땅을 공유한 사람들의 흔적, 시간의 켜를 한눈에 본다. 수장고에 들어가 유물을 가까이 감상할 수도 있다. 유물 번호를 키오스크에 입력하면 설명이 나와 관람하기도 수월하다. 역사책에서 읽은 태항아리, 지금은 사라진 소주 뒷병, 상여에 치장한 꼭두, 손으로 빚어 조금은 비뚤어진 모양새가 사랑스러운 백자 병. 높이신 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유물에 어린 희로애락과 지혜가 오늘의 관람객을 다정하게 어루만진다.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크고 작은 박물관. 전시관이 즐비한 박물관 도시 파주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이 개방형 수장고로 관람객을 맞는다. 경기 북부 지역 첫 국립박물관이다.  
문의 031-580-5800



### 02

#### 민속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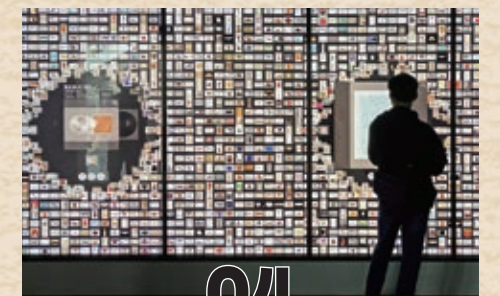
2004년 KTX가 개통하면서 기차 속도는 두 배 빨라졌다. 그 속도가 불러온 변화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인류 역사가 세탁기, 칫솔, 스마트폰 같은 물건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다면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서 우리는 얼마큼 멀리 왔고 또 어떤 부분은 여전할까. 2층의 민속아카이브에서 옛 사진을 보며 생각한다. 일부는 디지털 액자라 다이얼을 돌려 가면서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같이 전시하는 비디오테이프도 반갑다. 누군가는 이걸 평생 처음 만져 보겠다. 영상 속 회갑, 돌잔치가 정감 넘친다.



### 03

#### 보이는 수장고 7

박물관은 수장고 열다섯 개 가운데 열 개를 공개한다. 7번 수장고는 새로 수집한 자료를 보관하고 등록하는 곳. 운이 좋으면 학예사가 실제 자료를 붙들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쪽 벽면에 설치한 커다란 화면에서 흥미진진한 영상이 나오니 꼭 들러야 한다. 내용은 자료 입고·측정·등록부터 대여 과정까지, 우리가 모르는 박물관 업무 이야기. 직원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웃음을 자아내고, 여기에 미니어처 직원들을 그림으로 덧입혀 영상의 깜찍함이 그만이다. 옆의 보존과학실 체험도 재미 만점. 시간을 모은 공간 박물관에서는 시간 가는 줄 도무지 모르겠다.



### 04

#### 소장품 정보실

벽면 가득 소장품 사진이 흘러간다. 화면에서 궁금한 유물을 선택하면 사진이 커지면서 이름과 보관 위치 등 정보가 나온다. 빛에 약해 수장고형 박물관에서도 개방이 안 되는 종이류 유물인 편지를 터치했다. "우리 큰사위 진정한 군에게/ 먼저 귀여운 딸을 순산하고, 모녀가 건강하다는 전화 진심으로 축하하네. (중략) 진즉 축하 편지 낸다는 것이 내가 몸이 좋지 않아(독감) 좀 늦어져서 미안하네. 무척 기다렸지?" 1984년만 해도 장인이 사위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40년 사이에 소식을 전하는 방법도, 속도도 이만큼 달라졌다. 물론 마음은 같을 것이다. 박물관에서 새삼 실감한다. 오늘이 모여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 기억에 남는 유물 6

인상 깊은 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별하게 말을 건넨 유물 여섯 점을 골라 소개한다.



**백자양각장생문육각병**

넉넉한 호박 같은 아래쪽과 좁고 기다란 위쪽에 모두 각이 살아 있는 조선의 육각 백자는 물이나 술을 담은 용기다. 해, 대나무, 소나무, 거북, 학, 사슴, 구름, 불로초를 양각했는데 각이 약간 틀어진 모양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제작하던 시절이 읽힌다.



**떡살, 다식판**

곡식 귀한 때 간식이란 얼마나 특별했는지. 떡과 다식을 예쁘게 빚어 먹고 싶은 마음에 이런 떡살과 다식판을 만들었을 것이다. 목숨수(壽), 복 복(福) 자나 출세를 기원하는 물고기 문양을 새겨 넣었다. 어느 물고기 문양에서는 이중섭 화백 그림도 생각났다.



**배밀이**

독특한 모양이 눈길을 끌기에 키오스크에 번호를 입력하니 "뜨겁게 달구어 배 위에 올려 문지르는 기구"라 설명한다. 흙으로 빚어 구운 배밀이는 손잡이가 달려 있어 아픈 배를 오래오래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겠다. 말하자면 조선 시대의 약손, 찜질팩.



**저울추**

처음엔 지뢰인가, 수동인가 가웃거렸다. 키오스크가 정확한 이름 '저울추'를 알려 준다. 디지털 저울이 널리 퍼진 지금은 생소해졌다지만, 그 이전 세대에 생활필수품이었을 것이다. "저울추가 기운다"처럼 관용적 표현으로 남은 물건을 실제로 본다.



**태항아리**

높이 32센티미터 항아리에 뽀뽀한 문양이 정성스럽다. 과거 왕가에서는 아이를 낳고 나서 태를 봉해 길한 땅에 묻었다. 세력 있는 가문에서도 이를 행했다 한다. 병원에서 출산하는 오늘날엔 거의 사라진 풍습이나, 생명은 언제든 고귀하다. 이 태항아리처럼.



**술병**

수장고엔 별별 유물이 다 있다. 곰이 야구 방망이를 잡은 그림의 OB베어스 기념 컵, 'Seoul Korea(서울 코리아)'가 쓰인 항아리 등. 아직 술이 남은 이 병은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이 폐업하면서 기증한 것이다. 평범한 일상도 시간을 읽어 익으면 역사가 된다.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 한 걸음 더!



### 뮤직스페이스 카메라타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대표가 고향 파주에 연 클래식 음악 공간이다. 클래식 음악에 빠진 선생의 관심은 스피커로 이어졌고, 그 결과물이 앞쪽 벽을 차지하고 있다. 1930년대 유성영화 시대에 치열한 연구로 이름을 얻은 미국 웨스턴일렉트릭을 비롯해 독일의 클랑필름 등 1950년 이전에 제작한 엄청난 스피커들이 황홀한 향연을 펼친다. 음악과 음질 모두 감동. 지금도 황인용 선생이 무대 옆 보드에 곡목을 직접 쓰곤 한다. 입장료에 음료가 포함돼 있으며, 전시와 공연도 진행한다.



# 불어오는 바람 물결

Flowing Winds,  
Blowing Waves

전남도립미술관  
2024. 4. 9. tue  
— 7. 7. sun

Flowing Winds, Blowing Waves

- 구본아 Koo Bon A
- 기 바르돈 Guy Bardone
- 김대원 Kim Daewon
- 김역 Kim Eok
- 김호득 Kim Hodeuk
- 데이비드 호크니 David Hockney
- 도나후안카 Donna Huanca
- 로랑그라스 Laurent Grasso
- 메리오버링 Mary Obering
- 백남준 Paik Nam June
- 빅토르 바사렐리 Victor Vasarely
- 앙드레 브라질리에 Andre Brasilier
- 에단콕 Ethan Cook
- 에드미놀리티 Ad Minoliti
- 유근택 Yoo Geuntaek
- 이강소 Lee Kang-so
- 이동엽 Lee Dongyoub
- 이세현 Lee Seahyun
- 이우환 Lee U-Fan
- 이응노 Lee Eung No
- 조병연 Cho Byeongyeon
- 조용백 Cho Yongbaek
- 최대섭 Choi Daesup
- 피터할리 Peter Halley
- 한만영 Han Manyoung
- 허달재 Huh Daljae
- 허준 Huh Jun
- 황인기 Whang In Kie

# 서촌이 그리는 색다른 한식

고즈넉한 분위기와 함께 특별한 한식을 만끽한다.  
서울 종로구 서촌의 퓨전 한식 음식점을 모았다.



*Seochon*



**도취 대표가 추천하는 서촌 맛집**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 '알키미아'의 젤라토를 드셔 보세요. 쌀, 흑임자, 막걸리, 숙 등 다양한 맛을 선보여 매력적입니다.

**도취** 붉은색 건물 벽면, 은은한 불빛이 조그마한 나무 간판을 비춘다. 계단을 내려가니 널찍한 공간이 손님을 맞는다. '도취'는 사회에서 만나 친구가 된 박동성, 오지용 대표가 힘을 모아 연 곳이다. 15년 넘게 요리를 공부한 박동성 대표의 기술과 오지용 대표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만나면 독특한 음식이 탄생한다. 육회 타르타르는 쇠고기를 곱게 다져 먹는 프랑스 음식 스테이크 타르타르와 한국의 육회를 결합한 시그너처 메뉴다. 우선 달걀노른자를 터트리지 않고 육회만 맛본다. 고기에 배 대신 사과를 채 썰어 넣었는데, 새콤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의외로 간장 양념과 잘 어우러진다. 달걀노른자, 그라나파다노 치즈를 잘 섞은 뒤 현미 누룽지를 곁들이니 고소함이 더해져 풍미가 한층 살아난다. 쫄깃함이 특징인 한우 꾸리살과 바삭한 누룽지의 조합 덕에 식감도 재미있어 자꾸 젓가락이 간다. 돼지고기 목살을 사용한 육전에 참나물무침을 얹은 제육저냐 역시 손님상에 자주 올라가는 메뉴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 연구를 거듭한다는 말에, 도취와 함께할 사계절이 더욱 기다려진다.

☞ 육회 타르타르 2만 5000원 제육저냐 2만 1000원  
📍 서울시 종로구 육인길 23-6 📱 @dochwi\_dining



도취

### TRAVEL TIP

봄바람 맞으며 도심 나들이를 하고 싶을 때 서촌으로 간다. 조선 시대부터 서촌이라 부른 이곳은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에 자리한 동네다. 북촌, 인사동과 더불어 한옥이 모여 있어 정경과, 엽전도시락으로 이름난 통인 시장이 위치해 한국인 여행자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사랑받는 여행지다. 서촌의 가장 큰 매력은 골목이다. 꼬불 꼬불한 길 사이에 보물 같은 가게나 카페, 갤러리가 자리해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최근 미국의 유명 커피 브랜드가 들어서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 두부 피자 2만 6000원 계절장아찌 화이트라구파스타 2만 1000원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1길 8 📱 @junsubangkitchen

준수방키친\_갓 구운 화덕 피자가 테이블에 놓인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고소한 냄새가 감각을 깨운다. 그릇에 조각을 덜어서 한 입 베어 물자 몽글몽글한 것이 씹히더니 이내 담백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재료의 정체는 바로 두부다. 두부를 찐서 물기를 없앤 뒤 리코타 치즈, 크림치즈를 섞어 토핑으로 쓴 것. 어린 시절 김성호 대표의 어머니가 만들어 주던 김치 피자에서 영감을 얻어 한식과 양식을 조화한 시도들이 지금의 '준수방키친'을 만들었다. 이제 두부 피자에 어울리는 맥주 클라라를 주문한다. 스페인 레몬 맥주에서 착안해 수제 레몬 시럽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켜니 상쾌한 레몬 향이 맴돈다. 피자뿐 아니라 다양한 파스타도 고안했다. 마늘종, 백김치, 궁채나물을 화이트 라구 소스와 결합한 계절장아찌 화이트라구파스타는 상큼함과 아삭한 식감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준수방키친이 손님의 오감을 자극하는 복합 공간이 되길 바라요." 재즈가 흘러나오는 한옥, 김 대표의 주방은 오늘도 열정으로 후끈하다.

👍  
준수방키친 대표가 추천하는 서촌 맛집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 자리한 카페 '아키비스트'의 아인슈페너를 좋아해요. 밀도 높은 크림이 인상적입니다.



#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끼 페스티벌

온라인 접수  
청소년선도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youtheye838>

2024.5.24까지

(사)청소년선도위원회 주최 | 일요신문 | 주관 | (주)엘에이티 후원



**고치비** 돌과 나무로 이루어진 인테리어가 제주도를 연상하게 하는 이곳은 고명훈 셰프의 애정이 듬뿍 담긴 공간이다. 그는 20년 경력을 쌓으며 줄곧 어릴 때부터 먹어 온 고향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하겠다는 꿈을 키웠다. 가게를 열기 전부터 구상한 시그니처 메뉴 고치비 리조또가 그 꿈의 증거다. 제주 향토 음식인 몸국을 이탈리아식으로 재해석한 것인데, 돼지 등뼈로 국물을 내고 치즈와 크림, 모자반과 쌀을 더한다. 여기에 구운 흑돼지고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올려 완성한다. 제주도의 흔적은 메뉴판에서도 보인다. '제주도 하민 흑돼새 기랑 몸국이주게' '잘도 귀한 옥돔이주게 마심' 등 방언으로 각 메뉴를 설명해 더욱 눈길이 간다. 고 셰프는 신선한 제주산 식재료를 공수해 재료 본연의 맛을 끌어올리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구운 옥돔 살에 셀러리 퓨레, 헤이즐넛을 곁들인 메뉴 제주산 참옥돔을 잘라 입에 넣으면 절로 입꼬리가 올라간다. 겉은 바삭하고 안쪽의 생선 살은 촉촉해 화이트 와인을 페어링하니 세상 부러울 것 없다. 서울에서 느끼는 제주도 정취, 딱 다정하고 반갑다.

☞ 고치비 리조또 2만 4000원 제주산 참옥돔 4만 5000원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38 📞 @osteria\_kochibi



고치비



👍  
 고치비 대표가 추천하는 서촌 맛집 수도권 전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를 둘러보세요.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국숫집 등 오래전부터 내공을 쌓아온 식당이 많아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 문명의 몰락은 안일함이다! 글로벌 지경학(Geo-economics) 격변기의 한국 기업 성공전략 컨퍼런스 G 2024에서 그 답을 드립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가장 주목하는 경영학 구루로 평가한 도널드 설(Donald Sull) MIT Sloan 경영대학원 교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돌파한 글로벌 기업 임원과 석학들 참여 불안정성과 변동성 증폭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해법 제시



**일시** 5월 21일(화) 09:30~16:15  
**참가신청** 오프라인(현장참석) 150,000원 온라인 100,000원  
**장소** 남산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 살롱  
**문의** 컨퍼런스 G 2024 운영사무국 02)3703-7100

시간	항목	발표자	내용
9:30~9:35	개회사	<b>전욱</b> (시사저널) 대표이사 부회장	
9:35~9:45	축사	<b>최남호</b>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9:45~10:45	Keynote Speech 1	<b>도널드 설(Donald Sull)</b> MIT Sloan 경영대학원 선임교수 前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 런던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한국 기업 도전 선택지를 바꿀 때다 과거의 성공 경험은 잊어라
10:45~11:00	Opening	<b>김기찬 부총장</b>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 석좌교수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대학교 국제 부총장 조지워싱턴대학교 초빙 교수 한인도네시아경영학회(KIMA) 회장	다시 보는 넥스트 차이나 위기와 기회의 공존
11:00~11:30	Session 1	<b>김경준 대표</b> 시이오랩기업데이터연구소	지정학-기정학-자정학 격변기의 전개
11:30~12:00		<b>이금룡 회장</b> (사)도전과나눔	Geo-economics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말한다
12:00~13:00	오찬		
13:00~13:30	Keynote Speech 2	<b>황주호 사장</b> 한국수력원자력	차세대 원전산업 SMR(소형모듈원전)의 해외시장 활로
13:30~14:00	Session 2	<b>김혜연 대표</b> 엔싱	중동 사막에서 녹색혁명 이룬 K스마트팜
14:00~14:30		<b>안세진 소장(사장)</b> 롯데미래전략연구소	넥스트 차이나 1순위로 각광받는 베트남 시장의 기회
14:30~15:00		<b>김남철 대표원장</b> 365mc	2억8천만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의 무궁무진한 잠재력
15:15~15:45	Session 3	<b>성일광 위원</b>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연구위원	중동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려면
15:45~16:15		<b>조은교 위원</b> 산업연구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우리의 新시장 전략



# 밀양은 언제나 축제

늠름한 영남루, 훑날리는 이팝나무꽃의 환대를 받으며 경남 밀양 땅에 들어선다. 누구보다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 황선미 문화관광해설사가 든든한 동행자로 나섰다.

# MIR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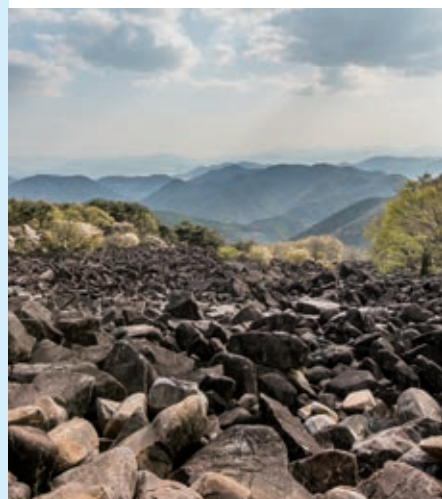


## 1 '아리랑' 가락에 들썩이는 당신에게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 오딧세이

“밀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도 ‘밀양아리랑’은 제법 귀에 익을 겁니다.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밀양 아리랑대축제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노래와 밀양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행사입니다. 1957년 밀양문화제로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러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큰 잔치로 자리매김했지요. 올해로 66회를 맞은 행사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밀양강과 남천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밀양 아리랑’으로 목청을 겨루는 경연 대회와 밀양 고유의 문화를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도 좋지만, 밀양의 역사와 정신을 담아낸 화려한 퍼포먼스 ‘밀양강 오딧세이’는 놓쳐선 안 될 하이라이트예요. 실재하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무대 삼아 낭만적인 봄밤에 펼치는 공연을 즐겨 보세요.”

## 2 사진 명소를 수집하는 여행자에게 위양지와 만어사 너덜경

“남들 다 가는 곳은 물론이고, 흔히 안 가는 곳까지 섭렵하고 싶은 당신에게 밀양의 사진 명소 두 곳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팝나무꽃이 만개했을 위양지입니다. 동백꽃이 저수지 주변을 물들이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함박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꽃망울이 터져 위양지를 환하게 빛내고 있네요. 머지않아 백일홍이 만발하는 여름이 오겠죠. 모든 계절이 아름다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다음은 등산의 수고를 감내할 만한 만어사입니다. 위양지에 비해 한적한 것이 매력인 데다, 외계의 풍경 같은 너덜경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연신 셔터를 누르게 합니다. 만어산 나찰녀와 옥지 연못의 흑룡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설화도 이 유려한 돌무더기에 신비로움을 덧대지요.”



### [여행 안내자]



**황선미**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별 좋은 계절, 밀양아리랑 대축제를 즐기며 우리 고장을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 3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은 당신에게 낙동강 자전거길 라이딩

“밀양의 또 다른 자랑, 낙동강 자전거길입니다. 하남 체육공원 입구 수산대교 부근에서 출발해 제방을 따라 밀양강변길을 달리는 29.3킬로미터 코스지요.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10분. 자전거길 곳곳에 공기 주입기와 화장실, 자전거 보관소를 갖춘 쉼터가 자리해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게다가 이 고장을 대표하는 문화 유적을 감상하며 쉬엄쉬엄 달리다 보면 그 자체로 훌륭한 역사 여행 코스가 됩니다. 삼랑진 생태문화공원 자전거 쉼터에서 작원잔도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특히 아름답고도 유익해서, 꼭 한번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밀양강이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인 삼랑진,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막아 내고 항전을 펼친 작원관지, 경남 양산 원동으로 펼쳐진 벼랑길인 작원잔도 등 풍광은 눈부시고 이야기는 구구절절하니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습니다.”



## 4 먹거리가 여행의 이유인 당신에게 밀양돼지국밥과 대표 맛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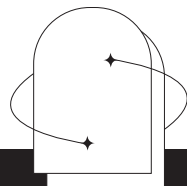
“돼지국밥 하면 밀양, 밀양 하면 돼지국밥이지요. 돼지국밥을 떠올릴 때 부산이 원조라 생각하기 쉽지만, 1930년대 밀양 장터에서 유래한 밀양돼지국밥의 역사도 그 못지않게 유구하답니다. 토렴식으로 조리하는 밀양돼지국밥은 최적의 온도에서 담백한 국물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오랜 시간 우린 진한 육수에 미리 삶아 둔 돼지 수육을 듬뿍 얹어 밥을 마는데, 부추김치를 곁들여 먹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혹시 밀양돼지국밥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굿바비’는 국밥이란 단어에서 이름을 딴 마스코트로, 입을 오물거리는 듯한 표정이 사랑스럽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아쉽다면 돌솥밥이 맛갈스러운 ‘수라간’, 참계탕이 일품인 ‘봉해회집’, 짙은 풍미를 지닌 ‘추원추어탕’을 추천합니다.”



## 5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는 당신에게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 산책

“해천은 1479년에 축조된 밀양읍성의 해자입니다. 밀양시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전개하고 일대에 항일운동테마거리를 조성해 역사적 자원을 발굴했지요. 나아가 2018년 3월에는 해천항일운동테마거리 중심부에 있는 약산 김원봉 생가 터에 의열기념관도 지어 올렸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이름은 그리 낯설지 않을 거예요. 영화 <암살>에서 배우 조소유가 연기한 인물로,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라는 강렬한 대사를 남겼거든요. 약산은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는 의열단을 조직해 식민 지배 기관을 무너트리려고 했던 치열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밀양독립운동기념관으로 걸음을 옮겨 지역 항일 활동의 역사를 보다 깊이 들여다보셔도 좋겠습니다. 밀양에 흐르는 송고한 희생 정신을 느낄 기회입니다.”





• FESTIVAL •

## 2024 연등회

● 서울 ● 05.10~12

개성과 정성이 담긴 행렬등 수만 개와 장엄등 150여 개가 서울 일대를 환히 밝힌다. 흥인지문에서 시작해 종각을 거쳐 조계사까지 행렬이 이어지는 이 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이다. 연등 행렬을 마친 시민들이 강강술래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끽하고, 행사 마지막 날에는 올해에도 돌아온 뉴진스님과 함께 EDM 난장을 펼쳐 뜨겁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소 서울 종각사거리, 조계사, 봉은사 외 문의 02-2011-1745

프로모션



## 5월, 공예 도시로 떠나자 <2024 공예주간>

산들바람 속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물건이 오간다.  
공예 축제 <2024 공예주간>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다.

정성스레 빛을 후 칠하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눈앞에 완성된 작품이 능름히 모습을 뽐낸다. 손길이 문은 공예품을 간직하고 사용하길 좋아하는 사람에게 <2024 공예주간>을 추천한다.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공예주간>은 올해 공예문화 거점도시로 고성, 진주, 부안, 전주를 선정했다.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이곳에서 다채로운 공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 부산, 제주, 횡성, 원주 등에서 14개의 기획 프로그램을 열어 '도시-일상-공방'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도시와 일상 곳곳을 공예와 만나는 자리로 만든다. 올해부터 <공예주간>에 새로운 표어가 붙는다. '산들바람 불어오는 공예 나루터'라는 말처럼 저마다의 설렘을 품은 사람들로 가득한 장이 될 것이다. 산뜻한 바람이 기분 좋게 얼굴을 스치는 5월, 오감이 즐거운 공예 나들이를 떠나자.



<2024 공예주간>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고 나누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해 2018년 시작한 행사다. 공예 마켓은 물론 전시, 체험, 교육, 토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일상에 스민 공예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5월 17일~26일  
공예문화 거점도시 외 전국  
@koreacraft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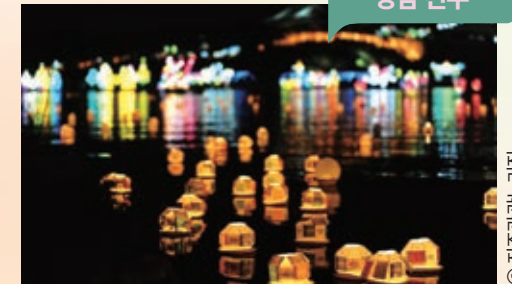


강원 고성



한국 대표 청정 지역 고성. 푸른빛이 넘실대는 송지호해수욕장을 거닌 후 치양마이 자수와 뜨개를 이용하는 수선 공예를 체험하고, 아야진해변에서 플로깅을 하며 생태의 가치를 되새긴다. 간성항 교에서는 전통 공예 기술인 각자와 유교 책판을 전시한다.

경남 진주



공예 도시 진주에서 오랜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찾아왔다. 해주소반을 만들어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로, 움집 조명등을 만나기 위해 청동기문화박물관으로 향한다. 진주남강유등축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한지로 유등을 제작할 땀소망을 떠올려 본다.

전북 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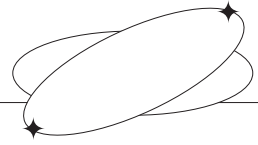


고려청자의 맥을 잇는 부안청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모여든다. 부안청자박물관은 청자 컵을 빚는 시간을 마련하고, 내소사에서는 차 문화를 익히며 잠시 근심을 내려놓게 돕는다. 고운 모래가 특징인 변산해수욕장에서 리사이클링 공예를 즐겨도 좋다.

전북 전주



풍부한 전통문화를 활용한 프로그램 중 한옥마을에서 진행되는 오감 이용 전시가 눈에 띈다. 가야금 선율을 감상하고, 섬유를 어루만져 보는 시간. 경기전 광장에서 '손으로 만드는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공예 장인을 만나는 토크 콘서트도 준비했다.



# what's up



• FESTIVAL •

## 제9회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 제주 → 05.09~18

다채로운 맛의 향연이 제주에서 펼쳐진다. 국내외 정상급 셰프 15명이 제주산 식재료로 자신만의 개성 있고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손님들을 맞는다. 세계적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추천하는 와인 페어링 코스를 즐기고, 수십 종의 와인을 시음해 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제주도민과 방문객 모두의 침샘을 자극할 미식 축제다.

장소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문의 02-3467-0303



• EXHIBIT •

## <고운 님 꽃길 걷네>

→ 서울 → 05.01~26

가정의 달 5월, '엄마의 봄날'이라는 주제 아래 김두엽 작가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 그는 80여 년간 바느질과 발농사 등 고된 노동을 이어나가며 딸·아내·엄마로 살다 83세에 처음으로 호미와 바늘 대신 붓을 쥐고 인생 2막을 시작했다. 눈이 확 트이는 채도 높은 색감과 행복한 풍경을 담은 회화 작품 45점이 보는 이를 웃음 짓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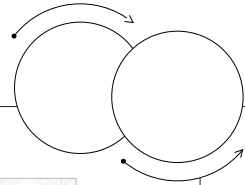
장소 서울 갤러리단정 문의 02-6104-0058



# 2024영주 소백산 철쭉제

2024.5.25.토 - 5.26.일 2일간  
영주시 서천둔치(영주교) 및 소백산 일원





# what's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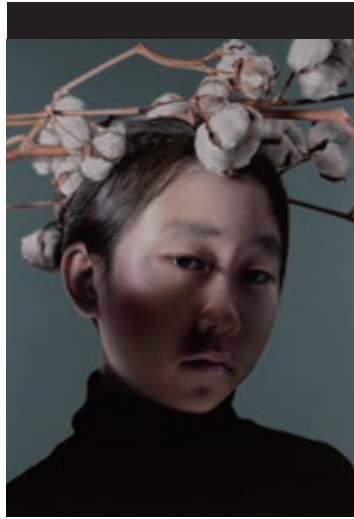
• FESTIVAL •

## 2024 공예주간

● 전국 ● 05.17~26

공예 문화 거점 도시로 선정된 강원도 고성, 경남 진주, 전북 부안. 전주에서 지역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진주에서 유등을 만들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섬유를 어루만져 보자. 이외에도 전국에서 열리는 14개 기획 프로그램과 함께라면 일상에 공예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테다.

장소 공예 문화 거점 도시(고성, 진주, 부안, 전주) 외 전국 문의 02-398-7951



© 강경환, '혜는 진다', 2022 사진 제공 조한화랑



• EXHIBIT •

## <아트부산 2024>

● 부산 ● 05.09~12

미술 애호가라면 제13회 <아트부산>을 주목해야겠다. 올해는 전 세계 20개국 127개 갤러리를 모아 갤러리 부스 섹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별 전시 프로그램 '커넥트'는 대형 조각이나 퍼포먼스, 장소 특정적 설치 작업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소개해 관람객과 교감을 시도한다. 아시아 미술 시장을 비롯해 전 세계 트렌드를 살피는 장이다.

장소 부산 BEXCO(벡스코) 문의 051-757-3530



• EXHIBIT •

## <정영선: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 서울 ● 04.05~09.22

한국 1세대 조경가 정영선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서울 선유도공원, 여의도 셋강생태공원, 경춘선숲길 등이 그의 손길을 거친 곳이다. 설계 도면, 모형, 사진 등 기록 자료 500여 점을 통해 땅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던 조경가의 생애를 훑고 마음을 헤아린다.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문의 02-3701-9500



• FESTIVAL •

##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 전주 ● 05.01~10

독립 예술 영화를 즐기러 전주로 간다. 올해는 국제경쟁, 한국경쟁 등 여러 부문에 역대 최대 출품을 기록했다니 더욱 기대된다. 타이완 출신 세계적 거장 차이밍량의 '행자' 연작 열 편을 관람할 특별한 기회도 놓치지 아쉽다. 다양한 영화 속 한 장면을 마음에 품어 본다.

장소 전북 전주 영화의거리 일원 문의 063-288-5433



• EXHIBIT •

## 화담채

● 광주 ● 상설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화담숲에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겼다. 별채에서 화담숲 꽃들의 자생 과정을 타임랩스로 담은 미디어아트를 관람할 수 있고, 본채와 별채 사이 들에서는 최병훈 작가의 '물의 명상'이 휴식과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장소 경기도 광주 화담숲 문의 031-8026-6666



# Spring

## 설레는 봄바람, 부산 가족 여행

활활하고 푸른 바다를 보러 부산으로 향한다. 낭만적인 봄 바다를 즐기는 최고의 방법, 송도해상케이블카다.



봄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 조금 더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싶다. 가정의 달이자 자연이 눈부신 5월엔 소중한 이들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기차 타고 부산에 내려 드넓게 펼쳐진 송도 바다에 다다랐다면 이제 송도해상케이블카를 탈 차례다. 푸른 바다 위를 날아가는 짜릿함이 모두를 들뜨게 한다.

### 86미터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송도해상케이블카에 올라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압남공원까지 1.62킬로미터를 이동한다. 눈앞에 펼쳐진 해안 절경은 누가 봐도 황홀해 구태여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을 따라 영도, 남항대교, 송도 해안 돌레길이 쭉 이어진다.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할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함이 밀려오지만 눈을 떼기 아쉬운 풍경이다. 캐빈은 바닥이 투명 강화유리인 '크리스탈 크루즈'와 불투명한 '에어 크루즈' 두 가지. 그중 취향에 맞게 하나를 골라 즐긴다.

### 함께 누린 즐거움을 추억으로 간직하다

송도해상케이블카 도착 지점에 있는 송도스카이파크에는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린다. 거대한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다이노 어드벤처'와 노란색 달팽이가 반기는 '달팽이가 가든'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어린 왕자> 캐릭터가 눈에 띄는 포토 존과 '부산의 달과 별' 조형물 앞에서 가족, 친구·연인과 오붓하게 촬영해 추억을 남겨도 좋다. 글로 간직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편지를 써 '느린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에 보내 주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적은 '모멘트 캡슐'은 2년 동안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소원의 용'과 '소원의 등'에 가족의 안위를 바라는 소망을 적어 걸어 두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진다.

### 송도에 낭만을 더하다

송도스카이파크 인근에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용궁구름다리가 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드는 다리는 해안 절벽을 배경으로 멋스러운 사진을 찍는 포토 스팟이기도 하다. 송도스카이파크 뒤편에는 초록 기운이 가득한 압남공원이 자리한다. 도심 속 자연공원에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모처럼 느긋하게 휴식을 취할 기회. 공원에는 예술 작품을 전시해 놓아 심심할 틈이 없다. 송도해상케이블카와 함께라면 가족과 즐기는 5월이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송도해상케이블카 이용객은 주중 1시간, 주말·공휴일 2시간 동안 송림주차장과 남항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5월 운행 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발권은 폐장 30분 전에 마감한다. 요금 크리스탈 크루즈 2만 2000원, 에어 크루즈 1만 7000원(대인 왕복 기준) 문의 www.busanaircruise.co.kr



# 풍경의 안쪽으로 한 걸음

여행 작가 노중훈이 여행 에세이를 썼다. 단순히 풍경만이 아니라 그 안쪽을 보려 애쓴 여행기다.

**Q. 책 제목 <풍경의 안쪽>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말 그대로 풍경의 안쪽을 담아내고 싶은 제 마음과 태도를 투영한 제목입니다. '안쪽'은 여행지에서 맞닥뜨린 거대한 풍경에 안겨 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풍경,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 등을 말하지요. 대번에 파악하기 어렵기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금 더 들어가서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나 보자는 제안이에요. 책에도 '안쪽'에 해당하는 장면과 에피소드를 많이 소개하려 했지요. 그중에서 스웨덴 예테보리의 카페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본인이 앉은 야외 소파가 동네에서 별이 가장 잘 드는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불교의 나라 미얀마 편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사원과 불탑보다 주민의 생활과 접선한 경험을 들려드리는 데 비중을 두었어요. 열차에서 채소를 다듬는 사람들, 어느 살림집에 우연히 들어 '언어의 장벽'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와 차 한잔 나누는 일 같은 거요.

**Q. 여행지와 그곳 사람을 존중하는 여행,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여행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행지나 사람을 쉽게 비교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자세도요.** A. 거창하게 말씀하셔서 부끄럽습니다. 타고난 성격에다, 일하면서 경험으로 체득한 것이 어우러진 결과가 아닐까 해요. 국내든 해외든 출장 가서 현지인과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거기서 얻는 가감 없는 시선, 생생한 정보와 지식이 말할 수 없이 소중한지요. 좀 더 나아가, 그분들 이야기가 제 여행의 전부 같아요. 저는 보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들으러 가는 사람이란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사실 여행 작가의 '공적 출장'은 시간이 촉박해서 깊이 파고들기 어렵

거든요. 이번 책에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여러 번 하지요. 그렇기에 틈틈이 마주친 주민의 '한마디'가 천금처럼 여겨집니다. 덧붙여 "스쳐 지나가는 여행객의 시선으로 현지 사정과 현지인의 삶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일종의 직업윤리 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작가님 글의 또 다른 특징이 사전을 찾아보게 한다는 점이지요. '길래' '늘쫌늘쫌' '마닐마닐하다' '민똥하다' 등 여러 단어를 알게 되었어요.**

A. 오래전에 만들었고 지금도 업데이트하는 상당한 분량의 단어장이 있어요. 아름답지만 자주 쓰이지 않아 안타까운 단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야겠다는 공명심이 제게 있나 봐요. 무엇보다, 맞춤법 지키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글 쓸 때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Q.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다음 계획이 궁금해요. <KTX매거진> 독자에게 추천 여행지도 귀찮게 주시고요.**

A. 신간이 나왔으니 북 토크로 독자님과 만나야죠. 책방 말고도 식당, 카페, 바,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 해 보고 싶습니다. <풍경의 안쪽>은 해외여행 에세이지만 당연히 국내 여행도 좋아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 태백에 다시 다녀왔는데, 경제를 견인한 관광들이 거의 문을 닫아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곳에 저는 더 마음이 쓰여요. 태백에 가시면 70여 년 세월 동안 온갖 영욕을 겪어 낸 '장성양조장', 주민이 수시로 드나드는 '혜성만두', 소머리국밥과 수육이 입맛을 돋우는 '연화네가마솔황소머리국밥', 제 기준 최고의 부침개 가게 '메밀전집', 직접 담근 고추장을 푼 장칼국수가 사랑스러운 '행복 칼국수' 등 지역 밀착 공간에도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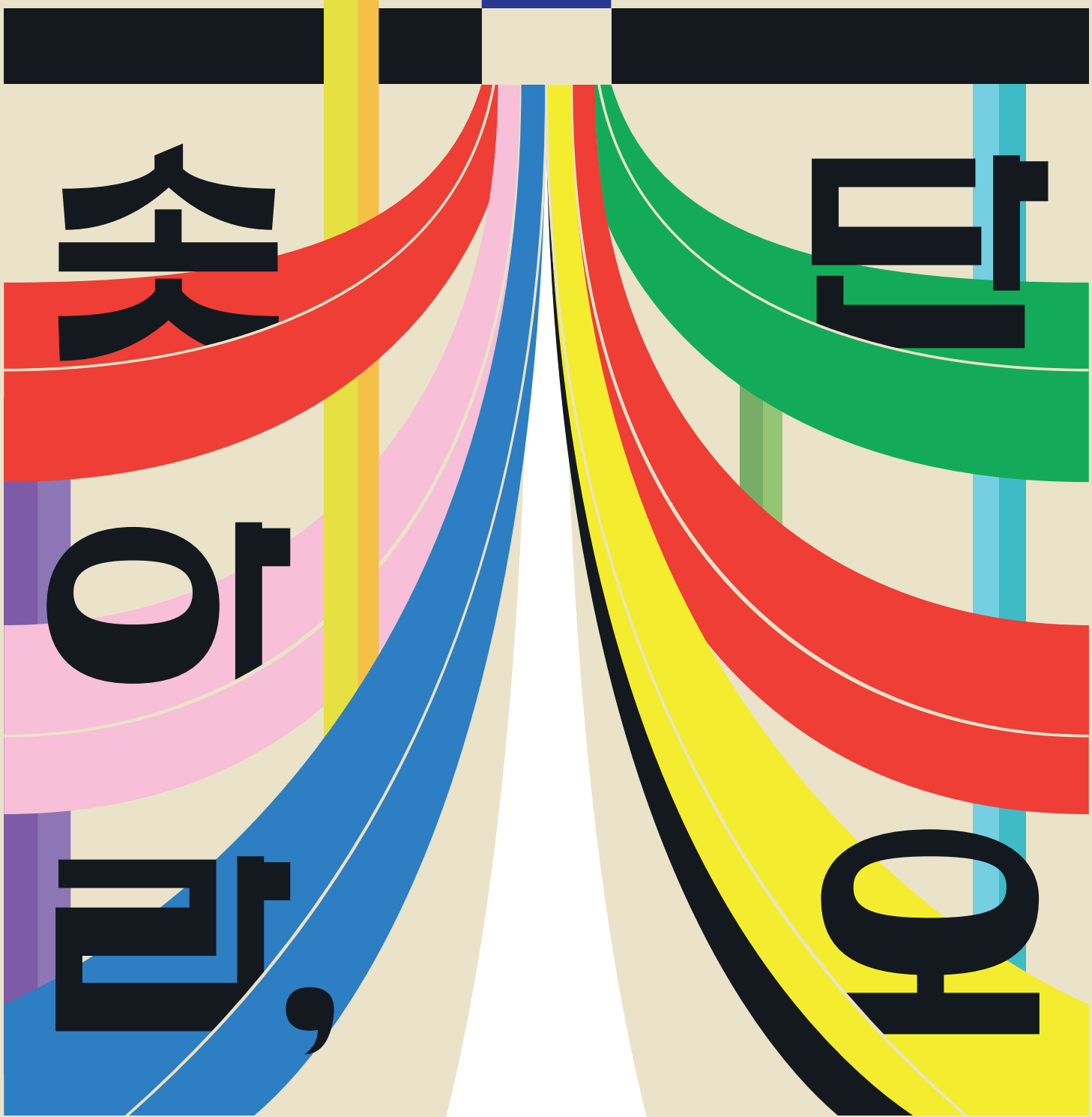


**<풍경의 안쪽>** 노중훈 작가의 첫 여행 에세이다. 이전 책 <할매, 밥 됩니까> <식당 골라주는 남자>가 맛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풍경을 주인공 삼았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세이셸 마헤, 코소보 프리슈티나 등 아름다운 여행지를 빼어난 사진과 함께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노중훈** 지음 **상상출판** 펴냄

**노중훈** 25년 동안 끊임없는 탐구 정신으로 맛과 그 너머 이야기, 사람과 풍경의 안쪽을 소개해 왔다.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진행자로도 활동 중이다.



2024 강릉단오제 GANGNEUNG DANOJE FESTIVAL



2024.6.6.목요일 - 6.13.목요일

프로모션

# 강릉의 빛나는 밤, 월화거리 야시장

5월~10월(매주 금·토요일) / 강원도 강릉 월화거리 일원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월화거리에 사람이 하나둘 모여든다. 월화거리는 강릉역에서 이어지는 폐철로를 따라 조성한 2.6킬로미터의 산책로다. 오래전부터 강릉 남대천에 전하는 월화정 설화에서 이름을 가져왔는데, 신라 시대 화랑 무월랑과 지방 토호의 딸 연화 아씨의 사랑 이야기에서 착안해 이름을 지은 만큼 오늘날도 낭만이 가득하다. 곳곳에 놓인 조형물을 구경하며 건자 아롱진 불빛이 보인다. 야시장을 밝히는 빛이다.

### 강릉의 문화를 만나는 곳

5월에 시작해 10월까지 운영하는 월화거리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연다. 삼겹살치즈말이, 짬뽕만두, 쌀

국수, 문어버터구이 등 각종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식품 매대 스물두 곳과 캔들, 주얼리같이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나는 플리마켓 스물여섯 곳이 거리에 늘어선다.

야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판매자가 강릉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나 자영업자라 도시의 매력을 담은 이색적인 상품도 여럿이다. 식품 매대에서는 야시장 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화용기를 사용하니 환경 걱정을 덜다. 이뿐 아니라 월화거리 한편에 자리한 휴게 공간에서는 문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낭만 넘치는 월화거리에서 이 도시의 매력에 꼭 빠진다.

문의 033-640-5409



# 활짝 핀 봄, 2024 삼척장미축제

5월 18일~22일 / 강원도 삼척장미공원 일원

삼척을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가는 오십천 부근에 붉은 물결이 일렁인다. 삼척장미공원에 만개한 장미 때문이다. 8만 5000제곱미터(약 2만 5700평) 규모의 삼척장미공원에서 올봄에도 성대한 꽃 축제가 열린다. 이번에는 '피어나는 장미의 꿈'이라는 주제 아래 200종이 넘는 장미로 잔디광장, 산책로 등 공원 곳곳을 꾸몄다. 붉은 장미나 덩굴장미는 물론 백장미, 분홍 장미, 주황빛 장미, 푸른 장미까지 다채롭다.

### 눈길을 사로잡는 장미의 향연

사진기를 들고 찍기만 해도 인생 사진을 얻을 수 있는 포토 존과 장미터널, 장미성을 지나 공원으로 들어간



다. 걸음을 땀 때마다 색색의 장미가 보여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다양한 장미를 식재한 것뿐 아니라 꽃길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민경훈·케이시·우예린 외 여러 가수가 꾸미는 로즈콘서트, 스트릿 버스킹, 재즈, 미술쇼 등 공연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축제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각각 삼척문화예술관과 삼표시멘트 제2공장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행사장에 방문하기 한결 수월하다. 공원 입구에서 대여해 주는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해도 좋다. 봄날, 꽃향기 그윽한 삼척에서 사랑하는 이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자.

문의 033-570-3081





GOOD DESIGN  
AWARD 2023

#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 파나소닉 EP-MAN1을 선물하세요

우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파나소닉의 하이퍼엔드 안마의자 리얼 프로 EP-MAN1을 선물할 시간이다.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건강이다. 훈훈한 봄바람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정의 달 5월, 특별한 선물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주목해야겠다. 헬스케어 가전의 명가 파나소닉이 올봄 최대 100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판매 이벤트를 마련한다.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재현한 전신 안마의자, 파나소닉 신제품 EP-MAN1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할 기회다. 최신 기술력으로 목과 어깨, 팔, 허리와 엉덩이, 다리와 발바닥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하이퍼엔드 안마의자 가지치기 쉬운 이 계절의 생체리듬을 탄력적으로 잡아 줄 것이다.

### 편안한 좌석, 한층 넓어진 마사지 도달 영역

신제품 EP-MAN1의 가장 획기적인 진화는 마사지 구동 영역을 확장한 SJ 프레임 적용에 있다. 상하좌우 총 630개 포인트를 감지해 마사지 볼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목부터 척추, 엉덩이에 이르는 신체 부위를 골고루 마사지해 긴장을 풀어 준다. 셸(shell) 형태로 몸 전체를 온전히 감싸는 디자인은 의자에 앉은 순간부터 휴식에 쉽게 몰입하도록 돕는다. 130도에서 170도까지 등받이를 기울이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신체 상태에 맞는 최적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사용자의 키에 따라 조절 가능한 발판, 폭신하고 아늑한 탈착 쿠션 등 완벽한 이완의 시간을 위한 디테일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 궁극의 휴식을 위한 최신 스마트 기술

상하, 좌우, 전후로 부드럽게 작동하는 3D 입체 마사지 볼은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총체다.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 마사지 볼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졌고, 이로써 보다 다양한 마사지 기법을 구현해 냈다. 세러피스트의 노련한 손놀림처럼 약 1센티미터 간격으로 회전하는 네 개의 마사지 롤러 또한 섬세하고 꼼꼼한 마사지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다. 본체에 내장한 블루투스 오디오와 USB 충전 포트를 이용해 음악을 곁들이니 휴식이 더 감미로워지고, 일상은 더 즐거워진다.

### 파나소닉 안마의자 봄맞이 이벤트

MAN1 | MAK1 | MAJ7 | MAF1 | MA32 | MAC9 | MA22 | MA05

현재 사용 중인 안마의자를 파나소닉 제품으로 교체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나소닉 제품은 물론, 타사 제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전 제품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MAN1 구매 고객은 최대 10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기간 5월 1일~26일 문의 1588-8452

www.panasonic.co.kr

# REAL PRO MAN1 가정의달 보상판매

## 최대 100만원 할인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연세나 사립병원 안마의자  
89% 무상보증  
선전안마기술집약체 4년 무상보증 1년+3년



## 파나소닉 안마의자 보상판매 이벤트

사용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타사제품 포함)  
MAN1 최대 100만원, MAK1을 포함한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24.5.1 ~ 2024.5.26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질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점 (02)542-8452 서울 서초구 | 파나소닉 HMM프라자 (02)755-8452 서울 중구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부산 수영구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대구 북구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대전 서구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1-8452 대구 중구 | 파나소닉 용인프라자 (051)255-0222 부산 중구 | 파나소닉 명심프라자 (051)633-8452 부산 동구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광주 북구 | 파나소닉 천안프라자 (041)522-8452 천안 동남구 | 롯데 백화점 본점 9층 (02)726-4545 서울 중구 | 롯데 백화점 잠실 10층 (02)2143-7793 서울 송파구 | 롯데 백화점 강남 8층 (02)531-2045 서울 강남구 | 롯데 백화점 일산 8층 (031)909-3091 경기도 고양시 | 롯데 백화점 센텀 7층 (051)730-3330 부산 해운대구 | 롯데 백화점 대전 B1층 (042)523-5322 대전 서구 | 롯데 백화점 광주 9층 (062)-221-1932 광주 동구 | 현대 백화점 무역센터 4층 (02)3467-8348 서울 강남구 | 현대 백화점 목동 B1층 (02)2163-1843 서울 영천구 | 현대 백화점 원곡 7층 (031)5170-1835 경기도 성남시 | 현대 백화점 여의도 5층 (02)3277-0581 서울 영등포구 | 현대 백화점 대구 7층 (053)-245-2730 대구 서구 |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10층 (042)720-6050 대전 서구 | 신세계 백화점 분점 신관 2층 (02)310-1678 서울시 중구 | 신세계 백화점 강남 9층 (02)3479-1628 서울 서초구 | 신세계 백화점 의정부 8층 (031)8082-0854 경기 의정부시 | 신세계 백화점 대구 7층 (053)661-6723 대구 서구 | 신세계 백화점 센텀 7층 (051)745-2389 부산 해운대구 | 신세계 백화점 대전 지하1층 (042)607-8659 대전 유성구

1

**새로운 프레임** 마사지 볼 도달 부위를 목에서 척추, 엉덩이, 허벅지까지 확장한 SJ 프레임이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2

**전신을 감싸는 셸 디자인** 온몸을 감싸 안는 셸 형태 좌석이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출해 한층 아늑한 휴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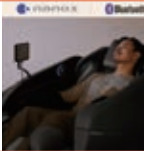
3

**리얼 프로 3D 마사지 기법** 약 1센티미터 간격으로 회전하는 전문가의 섬세한 마사지 기법은 파나소닉만의 독창적 기술이다.



4

**나노이 & 블루투스 스피커 탑재** 일반 이온의 1000배 가까운 수분을 간직한 나노이 입자가 기분을 환기하고, 내장된 블루투스 스피커가 귀를 즐겁게 한다.



# 삼을 걷다, 운탄고도 영월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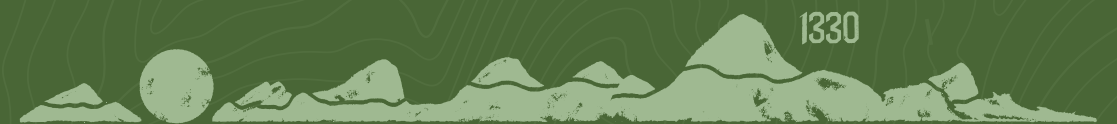
군주부터 광부까지, 이 길을 스친 이들의 숭고한 걸음을 생각한다.  
강원도 영월의 자연과 삶이 깃든 운탄고도 1, 2, 3길을 걷는 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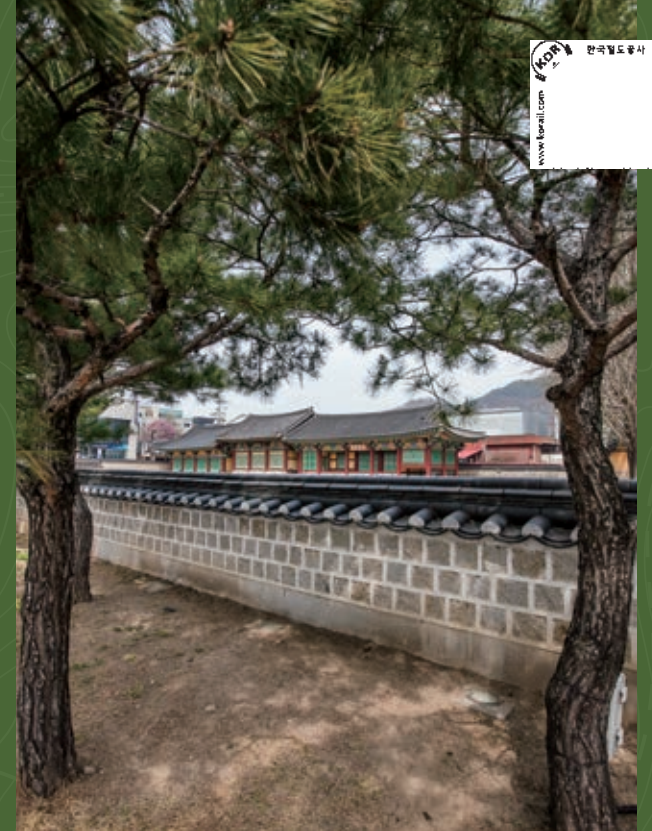
# 운탄고도





석탄을 나르기 위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낸 길, 운탄고도.  
영월 청령포에서 출발해 삼척 소망의 탑까지 도달하는 173.2킬로미터  
길이 탄광촌과 광부의 삶을 생생히 증언한다.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는 영월관광센터 건물에 자리한다. 완주 인증을 위한 운탄고도 1330 패스포트를 이곳에서 수령할 수 있다. 1330이란 숫자는 만항재의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문의 033-375-0111

대륙적 지구, 나무의 목질부를 이룬 리그닌 성분이 오랜 세월 지열과 지압을 받아 새카맣고 단단하게 탄화한다. 이것이 바로 석탄의 정체다. 발열량이 크고 가연성이 뛰어나 산업혁명의 동력원으로 쓰인 석탄은 오늘날 인류 문명의 근간이 되었다. 흔히 '검은 다이아몬드'라고도 칭했는데, 이는 채굴 노동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광부들이 붙인 별명이었다.

### 구름과 나란히 석탄을 나르던 길

강원도 영월의 북면·김삿갓면·영월읍·상동읍 등지에는 무연탄 탄전인 영월탄전이 분포해 있다. 1935년 마차지구의 대한석탄공사 영월광업소가 문을 연 뒤 강원도 정선·태백·삼척 일대에도 탄광촌이 생겨났다. 옥동탄광을 비롯해 영월 곳곳에 탄광이 들어섰고,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석탄 개발은 대단한 호황을 이뤘다. 값싸고 효율이 뛰어난 석탄은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기 시작한다. 자연



히 수요가 급감해 채산성이 떨어졌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인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펼친 결과 영월탄전은 모두 폐광 수순을 밟았다. 2002년에는 영월화력발전소마저 폐쇄되었다. 사람이 떠났어도 자연은 기억한다. 석탄을 나르기 위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낸 길, 운탄고도(運炭高道). 영월 청령포에서 출발해 정선 도롱이연못과 태백 까막동네를 지나 삼척 소망의 탑까지 도달하는 장장 173.2킬로미터 길이 탄광촌과 광부의 삶을 생생히 증언한다. 총 일곱 개 구간에 걸친 운탄고도의 평균 고도는 해발 546미터로, 최고 높이 1330미터는 만항재에서 기록된다. 구름계에 이어진 이 길엔 어쩐지 구름 운(雲), 평탄할 탄(坦) 자가 어른거리는 듯도 하다. 강원도의 너그럽고도 장대한 산천이 광부들의 지친 어깨를 감싸안았을 것이다. 몇 차례 내린 봄비에 풀빛이 짙어가는 무렵, 가벼운 짐을 둘러 메고 짐을 나셨다. 목적지는 영월. 강원 지역 탄광 개발의 첫 삽을 뜬 이 고장에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가 있다. 완주를 욕심 낸 건 아니지만, 스탬프 인증 페이지와 구간별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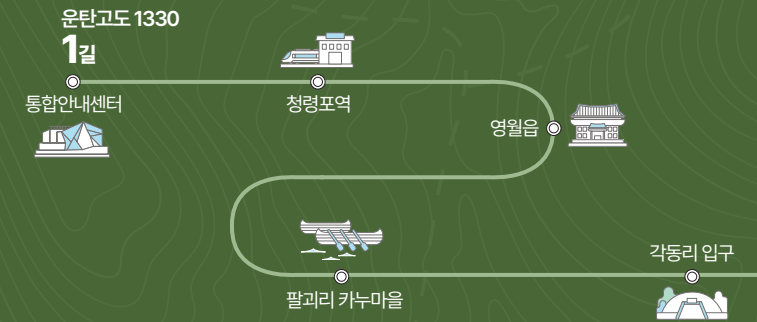
청령포 물길 저편엔 철길이 지나간다. 숲길을 헤치고 언덕 한 굽이를 넘으니 멀지 않아 청령포역이다. 마을 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다 보면 화물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장면도 맞닥뜨린다.

정보를 채워 넣은 운탄고도 1330 패스पोर्ट를 든 든한 동행 삼아 길을 살필 요량이었다. 봄별이 뭉근히 달근 영월역 광장에 다다랐을 땐 두꺼운 겉옷과 함께 일상의 시름을 벗어던졌다. 훌기분한 몸과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땅과 길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 청령포 물길 따라 한 걸음씩

운탄고도 1길의 출발점, 청령포 입구에 섰다. 패스पोर्ट를 열어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 스탬프를 꼭 찍어 남긴다. 스탬프 도안에는 두 척의 나룻배와 청령포 모습이 촘촘하게 그려져 있다. 서강이 해자처럼 휘돌아 흐르는 자연 발생적 유배지인 이곳에서 비운의 왕 조선 단종이 짧은 생애의 마지막을 보냈다. 탄광의 역사를 더듬기에 앞서 이 땅을 스치고 간 영혼들을 생각한다. 운탄고도 1길을 설명하는 문구, '성찰과 여유, 이해와 치유의 트레킹 코스'를 되새기는 순간이다.

청령포 물길 저편엔 태백선 철길이 지나간다. 소나무 숲길을 헤치고 언덕 한 굽이를 넘어서니 멀지 않아 청령포역이 나타난다. 조붓한 발뽀기가 펼쳐진 마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시멘트 같은 공업 원료를 실어 나르는 화물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장면도 맞닥뜨린다. 청령포역은 1978년 개역 이래 지금까지 여객 열차를 취급한 적 없는 신호장이다. 1995년에 역무원이 배치되었으나 10년이 채 안 되어 다시 철수한 내력이 있다. 영월을 대표하는 여행지인 청령포와 달리 외딴 산중에 자리한 청령포역까지 찾아오는 이는 흔치 않다. 국지산 자락의 푸른 능선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오도카니 선 청령포역. 오직 걷는 자에게만 허락된 발견의 기쁨이다.





예밀와인마을은 훌륭한 포도 생육 조건을 갖추고 부단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예밀와인 화이트 청향이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수상했다.  
문의 033-375-3723

최성범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장에 따르면 운탄고도 코스 일부가 마을 공동체와 문화유산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 중이다. 1길의 경우 각고개 입구를 지나는 기존 코스 대신 영월강변치류지 수변공원을 경유해 영월읍 중심을 가로지르며 관풍헌과 자규루를 둘러보는 새 코스를 마련하고, 종착점 또한 각동리가 아닌 고씨굴로 바꾸어 접근성을 높인다. 더 많은 이들을 운탄고도에 불러 세우고자 함이다. 볼거리와 풍경, 이야기의 켜가 한층 풍부해지겠다.

### 방랑자의 마음으로, 광부의 걸음으로

운탄고도 2길에는 '김삿갓 느린 걸음 굽이굽이길'이란 설명이 따라붙는다. 2012년 국제슬로시티가 공인한 강원도 최초 슬로시티, 김삿갓면을 지나는 길이라서다. 얼마나 여유로운지 '늘보마을'이란 이름을 가진 부락도 있다. 과연 유유자적의 대가, 방랑 시인 김삿갓의 고향답다.

김삿갓아리랑장터와 김삿갓면사무소를 거쳐 영월동로를 죽 따라가면 맛 좋은 포도가 나기로 유명한 예밀와인마을에 닿는다. 석회암질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 망경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 이곳만의 고유한 테루아가 고품질의 와인을 빚어냈다. 본격적인 산행에 나서기 전, 이 마을의 사랑방인 예밀와인 힐링센터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이완하기로 한다. 2012년부터 시험 생산을 시작해 10여 년의 개발 끝에 대한민국 주류대상을 휩쓸기까지 제대로 무르익어 온 예밀와인을 시음하고 족욕도 즐길 기회다. 우선 농밀한 풍미가 입안을 즐겁게 하는 드라이, 루비처럼 맑은 주홍색으로 빛나는 로제를 번갈아 훌쩍이면서 취흥을 끌어올린다. 40도를 웃도는 온수에 발을 담근 뒤엔 핑크 솔트와 정제 이전의 투박한 와인을 넣어 향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강원도 영월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2024년 5월 4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딜 봐도 탄광의 흔적이 완전하다. 자작나무는 폐탄광 산림 훼손지 복구 사업에서 채택한 수종 중 하나로 강원도 곳곳에 조림되었다. 석탄을 나르던 폐삭도 시설도 영월탄전의 곡진한 사연을 품는다.

을 한껏 돋운다. 온몸의 감각세포를 자극하는 포도 향내에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만물이 아름다워 보인다. 다시 신발을 고쳐 신고 길을 떠날 차례. 옥동천 지류를 낀 채 완만하게 흘러가던 2길은 망경대산 자락에 접어들면서 가파른 산길을 타기 시작한다. 여기부터 만만치 않은 등산로가 펼쳐진다. 산허리쯤 닿았을까, '삭도'라고 써 붙인 버스정류장이 잠시나마 걸터앉을 자리를 내준다. 이마에 흥건한 땀을 닦고 빼근한 장판지를 두들기며 주변을 살피니, 자작나무가 늘어선 숲과 군데군데 이끼가 낀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야에 든다. 어딜 봐도 완전한 탄광의 흔적이다. 추운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자작나무는 1990년대 말 폐탄광 산림 훼손지 복구 사업에서 채택한 수종 중 하나로, 서늘한 강원도 고산지대 곳곳에 조림되었다. 광산에서 채굴

한 석탄을 실어 날랐을 폐삭도 시설 또한 영월탄전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2길의 종착점이자 3길의 출발점은 모운동이다. 구름이 모이는 곳이란 이름처럼 운무가 잦은 고산지대에 걸친 마을이다. 2022년 가을 운탄고도 정식 개통식을 앞둔 때, tvN 스토리 채널에서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 <운탄고도 마을 호텔>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산악인 엄홍길과 산을 사랑하는 방송인들이 첩첩산중 모운동에서 마을 호텔을 운영한다는 흥미로운 설정, 자연과 사람으로부터 길어 올린 훈훈한 이야기가 수많은 여행자를 이곳으로 불러 모았다. 촬영 당시 마을 호텔로 사용하던 노란 건물은 현재 주말에만 여는 식당 겸 카페로 업태를 바꾸어 운영 중인데, 입구에 우뚝 선 출연진 입간판이 환한 미소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구름이 모이는 마을, 모운동은 운탄고도 2길의 종착점이자 3길의 시작점이다. 주택 외벽 곳곳에 그림을 그려 놓아 방문객에게 인사를 전하는 듯하다. 마을을 둘러싼 산 자락엔 광부의 샘과 황금폭포가 흐른다.

### 오래도록 기억할 곱고 깊은 길

지금은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자그마한 마을이지만, 한때 모운동의 유동 인구는 1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어엿한 초등학교와 우체국이 이곳에 들어섰고, 심지어는 영월읍에도 없던 영화관이 바로 여기서 성업했다는 사실이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 영화를 보러 찾아오는 외지인이 적지 않았다고 하니, 화려했던 모운동의 전성기를 짐작만 할 뿐이다. 모운동을 먹여 살린 것은 1953년 개광한 옥동탄광과 옥동광업소다. 1960년대 초 기준으로 이곳에서 1700명이 훌쩍 넘는 노동자가 연간 28만 5000톤을 생산했을 만큼 채산성이 뛰어났으나, 여느 탄광이 그러했듯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고 가스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해 채굴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1989년 4월 30일, 옥동탄광은 끝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도시처럼 번쩍이던 탄광촌 모운동의 눈부신 시절도 거기서 끝이 난다. 우리의 걸음은 다시 망경대산 깊은 골짜기로 향



한다. 운탄고도 3길은 '광부의 삶을 돌아보며 걷는 길'이다. 동발제작소와 광부의 샘이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탄광의 역사를 안내하는 랜드마크다. 동발이란 갱도를 떠받치는 기둥을 의미한다. 광산 개발이 진화함에 따라 동발의 소재도 나무에서 콘크리트, 철로 변화했다. 동발제작소라는 팻말 옆에 낡은 기둥과 벽체만이 남아 간신히 옛 탄광의 풍경을 짐작하게 한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광부의 샘이 자리한다. 탄광에 진입하기 전, 광부들은 이 샘에 동전을 던져 자신의 안녕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했다. 거울처럼 맑은 수면을 들여다보니 때마침 올챙이 수십 마리가 바지런히 꼬리를 흔들며 헤엄을 친다. 샘물의 올챙이든 모운동에서 살다 간 광부든, 목숨이 붙어 있는 모든 존재에겐 그저 생명이 절실할 뿐이다. 황금과 폭포라는 어휘가 압도감을 선사하는 황금폭포 전망대. 휘황한 풍경을 기대했다면 조금 실망할지도 모른다. 황금폭포의 실체란 갱도에서 흘러나온 물이기 때문이다. 철분을 함유한 폐광 용출수는 황금빛을 띠는데, 이 물이 흐르는 바위마저 같은 색으로 물들여 기묘한 풍경을 자아낸다.



저 황금빛 물줄기의 근원을 찾아보려거든 잠시 걸길로 새야 한다. 광산 노동자가 사용했던 옛 목욕탕의 잔해를 지나 한 발짝씩 걸어 나가니 어느새 깊고 검은 굴의 입구가 나타난다. 여전히 황톳빛 물이 팔팔 흘러나오는 갱구 앞에서 잠시 말을 잊는다. 저 안에 사람이 있었다. 눈으로 보고도 실감 나지 않는 사실이다.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갱도에서 누군가가 몸과 마음을 다해 채굴 노동을 완수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언제나 사랑이었을 것이다. 광부들이 가족과 자신을 위해 작은 샘에 동전을 던졌다면 이야기를 또 한 번 상기한다. 걸음으로 보아 도저히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샘과 갱은 우리 인생을 닮았다.



###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모운동에서 시작된 운탄고도 3길은 황금폭포 전망대와 사리재, 낙엽송 삼거리와 망경산사, 수라삼거리와 석항삼거리를 지나 영월과 정선의 경계에 다다른다. 3길의 종착점인 정선 예미역에 닿기 전, 영월 구간의 마지막은 석항역이 장식한다. 상동광업소 개광으로 번성한 석항리에 1957년 들어선 석항역. 과거에는 무궁화호와 통일호가 드나들었을 만큼 많은 사람이 오갔지만 지금은 무배치 간이역으로 신호장 역할만 수행한다. 빈 철로를 바라보며 지금껏 걸어온 길을 되짚었다. 골목길, 산길, 숲길 그리고 갱도까지 아우르는 운탄고도의 여정에 때론 가슴 벅차고 때론 눈시울이 뜨거웠다. 걷기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라고 했던 어느 작가의 말을 되새긴다. 길 위의 충만감, 걷기의 순전한 기쁨을 누리고 싶은 이에게 운탄고도의 봄을 권한다. 다시 걸음을 땔 때다. **㉠**

운탄고도 1330(영월 구간)

3길

모운동



황금폭포 전망대



사리재



수라삼거리



석항역

골목길, 산길, 숲길 그리고 갱도까지 아우르는 운탄고도의 여정에 때론 가슴 벅차고 때론 눈시울이 뜨겁다. 길 위의 충만감, 걷기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이에게 운탄고도의 봄을 권한다.





# Untan Godo's Yeongwol Section: Walking Through Life

Untan Godo Courses 1 to 3, imbued with the nature and life of Yeongwol in Gangwon Province, make for a lovely springtime walk.

Even when people depart, nature remembers. Untan Godo is a road carved deep into the mountains of Gangwon Province to transport coal. Stretching a grand total of 173.2 kilometers from Chyeongnyeongpo in Yeongwol to Samcheok Tower of Hope, passing through attractions like Dorongi Pond in Jeongseon and Ggamak Village in Taebaek, this route tells the tale of mining villages and the lives of miners. Untan Godo, spanning seven sections, averages an altitude of 546 meters above sea level, with its highest point reaching 1330 meters at Manhangjae Pass. The grand mountains and streams of Gangwon Province must have once embraced the weary shoulders of the miners.

## Transporting Coal Amid Clouds

Standing at the entrance of Cheongnyeongpo, the starting point of Untan Godo Course 1, travelers have their passports stamped

to mark the beginning of their journey. The stamp intricately depicts two sailboats and the scenery of Cheongnyeongpo. On this land by the Seogang River, the exiled King Danjong of Joseon spent the final days of his short life. Before delving into the history of the mines, one can't help but remember the sad souls who once roamed these lands. On the other side of Cheongnyeongpo, the Taebaek Line railway passes by. The train cuts through pine forests and climbs over a hill, and Cheongnyeongpo Station soon comes into view. Walking slowly along the village road, bordered by lush fields, you will see freight trains carrying cement and other industrial materials through tunnels. Unlike Cheongnyeongpo, a well-known tourist spot representing Yeongwol, Cheongnyeong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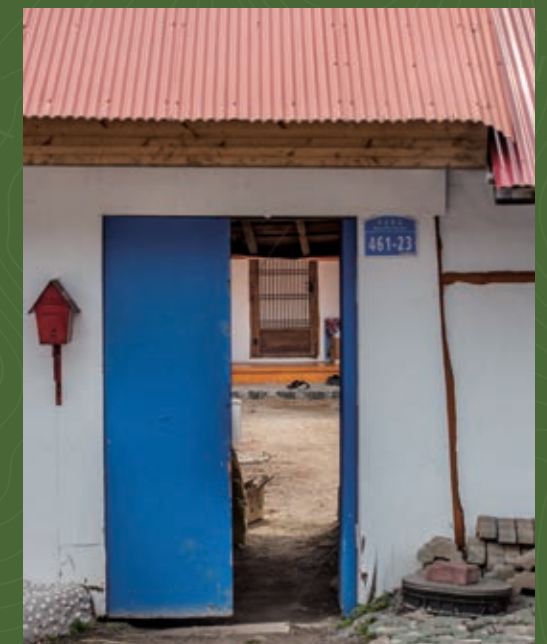
Station nestled in the remote mountains is rarely visit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blue ridgeline of Gukjisan Mountain, the picturesque Cheongnyeongpo Station is a discovery reserved solely for those who walk.

## With a Wanderer's Heart and a Miner's Steps

Untan Godo Course 2 is described as "slow winding path walked by Kim Satgat." It earned this description because it passes through Kimsatgat-myeon, Gangwon Province's first officially recognized slow city by the Cittaslow International in 2012. Such is the leisurely pace of life here that there is even a village named Neulbo Village, meaning "slow village." Indeed, it is the hometown of the wandering poet, Kim Satgat, the epitome of leisure and tranquility. The path, which gently flows along the tributaries of Okdongcheon Stream, begins to ascend sharply as it approaches the foothills of Mangyeongdaesan Mountain. From here, a challenging hiking trail unfolds. After what feels like reaching the heart of the mountain, a bus stop labeled "Sakdo" offers a brief respite. Wiping off sweat and massaging sore muscles, you will be greeted by dense forests of birch trees and aged concrete structures covered in patches of moss. Everywhere you look, there are unmistakable traces of the coal mine. Birch trees, thriving in the cold climate, were chosen as one of the species for reforestation in the late 1990s in areas damaged by abandoned mines, and they have been planted throughout the chilly highlands of Gangwon Province. The abandoned coal transportation facilities also hold the intricate stories of Yeongwol's coal mining history.

## A Deep, Dark Path to Remember

Untan Godo Course 3, starting from Moun-dong, is dubbed the "path of contemplation on the lives of miners." The Dongbal Workshop and Miner's Spring are the first signposts on this stretch that guide visitors through the history of the mines. Dongbal refers to the pillars supporting the gangway. Next to the signboard, only weathered pillars and remnants of walls barely hint at the landscape of the old mines. Not far from here lies the Miner's Spring. Before entering the mine, miners would toss coins into this spring, wishing for their safety and their family's happiness.



Peering into the crystal-clear surface, you will spot dozens of tadpoles vigorously wagging their tails as they swim. Whether it's a tadpole born in the spring or a miner who lived in Moun-dong, life is precious and valuable. The journey of Untan Godo encompasses alleyways, mountain paths, forest trails, and gangways. In the words of Rebecca Solnit, walking is "both means and end, travel and destination." If you would like to experience the pure joy of walking, head to Untan Godo this spring. 📍





# 영월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 즐길 거리



**강원도탄광문화촌** 모운동에서 출발하는 운탄고도 3길이 옥동광업소의 역사를 좇는다면, 북면에 위치한 강원도탄광문화촌은 마치 영월광업소의 삶을 톺아본다. 1960년대 탄광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생활관, 채굴 작업에 사용한 각종 장치를 소개하는 야외 채탄 시설 전시장, 실제 갱도였던 공간을 활용한 체험관 등을 살피며 탄광의 면면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석탄을 교과서로 배운 어린이부터 탄광촌의 문화와 정취를 기억하는 중장년 세대까지 두루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인 이곳에서 운탄고도의 여운을 음미해 본다.  
문의 033-372-1520



**영월트래블라운지** 영월을 여행하는 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다 가는 무인 플랫폼으로, 문화 공간 진달래장 한쪽에 위치한다. 이제 막 개소 1주년을 맞은 이곳은 무료 짐 보관, 공공 와이파이, 휴대전화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영월 여행 정보를 수록한 리플릿과 책자를 열람하도록 알찬 서가와 널찍한 책상도 마련했다. 라운지 한편에는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포토 존을 꾸며 놓아 여행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념사진을 남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영월역 바로 맞은편에 자리해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  
문의 1577-0545



## 먹거리

**두메브런치** 지난해 10월 문을 연 작고 아늑한 레스토랑으로, 영월 출신의 주인공 엄유리 대표가 주방을 맡고 있다. '도회에서 멀리 떨어진 나만의 작은 공간'을 표방하는 이곳은 지역에서 길러 낸 작물을 사용해 건강하고 담백한 풍미가 깃든 음식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곤드레. 최소한의 조리 과정만을 더해 곤드레 오일 페스토를 만들어 피자나 파스타에 활용한다. 상화에 '브런치'를 넣은 만큼 브런치 메뉴에 충실하다. 한 번 주문하면 무료로 리필 가능한 아메리카노, 따끈한 영월 감자 수프를 곁들여 조화로운 맛을 음미한다.  
문의 0507-1377-7621



**이달엔영월** 동강 둔치에서 오일장이 열리는 날, 덕포시장길 좁은 골목에 들어선 작은 베이커리도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은 시골 집을 매만져 완성한 공간엔 할머니 집처럼 아늑한 온기가 가득하다. 영월에서 나고 자란 패기 넘치는 주인장 정미나 대표는 영월의 대표 여행지 한반도지형을 본뜬 '한반도빵'과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인 호박식혜를 손수 빚어내고, '이달엔영월' 브랜드와 지역 청년 문화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인다. 6월에는 서울 여의도 더현대에서도 한반도빵을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33-372-7173

# 무릎 관절염, 줄기세포 재생 치료로 편안함을 회복하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계절, 청담셀의원의 골수 줄기세포 재생 치료로 무릎 관절 건강을 관리할 때다. 의료실비보험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무릎 관절염 환자들은 종종 난처한 상황과 맞닥뜨린다. 약물로 통증이 잡히지 않아 괴로움을 호소하는데도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곤 하는 것이다. 최근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치료법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바로 '골수 줄기세포 재생 치료'다. 보건복지부가 신의료 기술로 지정한 이 치료법의 공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흡인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다. 줄기세포 치료. 항노화 전문가인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신의료 기술 지정 이후 줄기세포 주사에 대해 문의하는 무릎 관절염 환자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조 원장에게 줄기세포 재생 치료의 주요 타겟과 구체적인 과정을 들어 보았다.

2~3기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대부분이지요. 아무래도 초기 증상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은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단순 진통제 섭취로는 통증을 잠재우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Q. 이미 진행된 무릎 관절염은 어떠한 치료법을 적용해야 좋을까요?**  
A.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수 줄기세포 재생 치료입니다.** 환자에게서 채취한 골수를 원심분리한 뒤 얻은 줄기세포를 농축해 이미 손상된 관절강에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자가 조직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하지 않고 고농축해 사용하므로 안전성은 물론 치료 효능도 높습니다.

**Q. 무릎 관절염 치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A. 무릎 관절염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 악화를 억제하는 데 있기에, **증상과 상태에 따라 맞춤 치료가 필요하지요.** 무릎 관절염 진행 단계는 크게 1~4기로 분류합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약물로 관리할 수 있지만 4기에 이르면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최대한 1기에서 오래 버티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놓쳐

**Q. 환자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골수 줄기세포 재생 치료 대상은 ICRS 3~4등급, 또는 KL 2~3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입니다. **이 경우 의료실비보험 적용도 가능합니다.**



**청담셀의원** 줄기세포를 특정 부위에 집중 주입하는 청담셀의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신 줄기세포 정맥주사인 '청셀(淸Cell)'을 필두로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活Cell)', 줄기세포를 진피층에 주입해 아름다운 피부로 개선하는 '미셀(美Cell)', 성기능을 건강하게 증진하는 '성셀(性Cell)', 두피에 직접 줄기세포를 주입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 등이다. 청담셀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부터 6년 연속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항노화줄기세포치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표원장 조찬호 | 명예원장 이시형 | 수석원장 박영석



# 선비처럼 영주 나들이

만물이 생기를 품은 날, 봄별이 스민  
경북 영주를 거닐다 전통문화와 살아 있는  
역사를 마주했다.



선비의 삶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테마파크 선비세상은 여섯 개 테마로 구역을 나누었다. 한식, 한복, 한지 등 한국 전통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한다. 선비마당, 한음약당 등에서 각종 공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문의 054-630-9700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에 피었고/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에 도 푸르구나/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선 시대 문인 정극인이 지은 가사 ‘상춘곡’ 중 일부다. 노래처럼 눈 닿는 모든 곳이 꽃과 잎으로 그린 그림 같은 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바깥이 궁금해 여장을 꾸렸다. 곧바로 KTX를 타고 경북 영주로 향했다. 풍기역에 내리자 굽뜨게 흐르는 구름이 별을 가려 주어 걷기에 쾌적하다. 강직한 선비 정신이 깃든 고장을 탐험하러 가는 길, 설렘에 발걸음이 빨라진다.

**전통과 만나는 테마파크, 선비세상**

첫 번째 목적지는 2022년 9월에 문을 연 영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선비세상이다. 풍기역에서 자동차를 탄 뒤 북쪽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영주역까지 KTX를 타고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풍기역에도 정차한다.



으로 10분 정도 달려 도착했다. 이곳은 96만 제곱미터(약 29만 평) 넓은 부지에 선비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테마파크를 조성해 입고, 먹고, 듣고, 즐기며 선비의 정신과 가치를 체험하도록 했다. 입구부터 단아한 기와집과 초가가 흠길을 따라 늘어섰다. 한옥·한복·한식·한지·한글·한음약 총 여섯 개 테마로 나눈 공간을 자박자박 누빈다. 가장 먼저 한옥촌이 손님을 맞는다. 대문을 넘어 기와집으로 들어가자 안내 음성이 들려오는데, 센서가 사람을 감지해 공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전통 문양을 조명한 기획전시실에서 문양에 담긴 옛사람의 소망을 헤아리고, 선비다례원에서는 다도를 배운다. 이처럼 각 촌마다 문화관, 공방, 놀이방 등에 전시나 미디어아트,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내용을 알차게 꾸려 한국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느끼고 바라보게 한다.

거대한 미디어아트도 인상적이지만 선비세상에서 꼭 감상해야 할 것은 한복촌에 놓인 삼일유가(三日遊街) 오토마타다. 길이가 18미터나 되는 오토마타 인형극에 영주도령이 장원급제해 선한 관리가 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담았다. 방송인 김태균의 내레이션에 맞추어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인형의 모습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시간은 줄 모르고 빠져든다. 한복 입기, 음식 만들기, 한지 뜨기 등 체험 프로그램 역시 다채롭다. 그중 한지 뜨기 공방에서 진행되는 체험에 참

**+ 2024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선비세상과 가까운 소수서원, 선비촌에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선비 축제가 열린다. 올해 주제는 ‘신바람 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로, 선비의 삶을 체험하고 한국 정신 문화의 뿌리를 탐색한다. 전국 팔도 선비 퍼레이드, 고택 체험 프로그램, 서원 풍류 음악회 등을 준비했다. 문의 054-630-8707

고요하고도 신비로운 정취를 음미하다가  
 눈앞에 놓인 천왕문을 보고 잠시 멈추어 마음을 가다듬는다.  
 아득한 옛날, 의상대사가 세웠다는 절이 문 너머에 있다.

여해 본다. 한지 재료인 닥나무 풀과 물을 잘 섞어 지통에 담아 둔 것을 발로 떠내는데, 발에 붙은 섬유를 판판한 곳에 두어 모양을 잡는다. 그런 후 물기를 빼고 바짝 말리면 하얗고 길긴 한지가 탄생한다. “우아, 정말 이게 종이 되나요? 여기 구름이 뜬 것 같아요!” 큰 지통에 몸을 기댄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체험에 임한다. 완성한 한지는 가지고 갈 수 있다. 체험자들은 한지를 이리저리 살피고 쓰다듬다 조심스레 가방에 챙겨 넣는다. 흔히 쓰는 공책보다 거칠어도 이곳에서의 기억이 담겼으니 어떤 종이보다 특별하게 느껴질 테다.

테마파크가 넓은 만큼 방문객을 배려해 쉼터까지 세세하게 신경 썼다. 길목 중간중간 놓인 정자에 바둑, 오목, 알까기처럼 소소하게 즐길 거리를 마련해 다리를 쉬는 동



안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 탁 트인 선비마당 한편에서도 자유롭게 옷놀이, 투호 등 전통 놀이를 경험할 수 있어 이따금 주위가 시끌벅적해진다. 아이는 화살을 던져 나무통에 넣으려 안간힘을 쓰고, 보호자는 아이의 모습을 열심히 카메라에 담는다. 정답고 사랑스러운 풍경에 덩달아 웃음이 지어진다.

**극락에 오르는 길, 부석사**

발길의 방향을 봉황산 쪽으로 돌린다. 등산로 초입, 커다란 일주문이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린다. 은행나무길을 거쳐 중턱에 다다르자 점차 소음이 잦아들어 때때로 새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고요하고도 신비로운 정취를 음미하다가 눈앞에 놓인 천왕문을 보고 잠시 멈추어 마음을 가다듬는다. 아득한 옛날, 의상대사가 화엄종을 펼쳤다는 절이 문 너머에 있다.

때는 신라 시대, 의상대사가 화엄을 공부할 요량으로 당나라로 건너간다. 어느 신도의 집에 머무르던 대사는 신도의 딸 선묘에게 사랑 고백을 받지만 불심에 이를 거절한다. 굳은 의지에 감복한 선묘는 영원히 제자가 되어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올린다. 이것이 진심이었는지 선묘는 바다에 몸을 던져 해룡으로 변했고, 급히 신라로 귀국하게 된 의상대사의 배를 보호했다고 전한다.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사가 문무왕의 명에 따라 사찰을 건립하려던 때도 선묘룡이 나타난다. 봉황산에 알맞은 터를 발견해 건물을 세우려 하자 그곳에 살던 무리가 비키지 않았다. 이에 선묘룡이 큰 바위를 공중에 들었다 놓아 부처의 힘을 보인다. 놀란 무리는 모두 의상의 제자가 되어 결국 무사히 절을 지었다. 앞선 이야기에 등장한 절이 바로 부석사다. 떠 있는 돌이라는 뜻을 품었는데, 이 역시 설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천왕문을 넘고 삼층석탑 두 기를 지나며 흥미로운 창건 설화를 곱씹는다. 뒤편에 놓인 범종루 가까이 간다. 1747년 재건했다는 누각 2층에는 붉은 여의주를 문 목어, 운

부석사는 화엄 사상을 전파한 신라 시대 고승 의상이 창건했다 전한다. 무량수전, 조사당, 소조여래좌상 등 다섯 점의 국보와 당간지주, 삼층석탑을 포함해 아홉 점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



판, 법고가 자리한다. 범종은 바로 옆에 따로 종각을 지어 달았다. 3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위엄은 그대로다. 아침저녁으로 여전히 타종을 행한다는 사실에 감탄만 나온다. 부석사의 백미, 무량수전으로 향하는 길은 특이한 구조다. 안양루 밑에서 계단을 올라 진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닦아 올린 것**

시야에 들어치는 석등과 무량수전을 두고, 우선 뒤를 돌아 세상을 천천히 굽어본다. 자목련, 목련, 산수유, 막 피기 시작한 철쭉으로 발아래가 꽃 천지다. 시선을 멀리 두면 겹겹이 솟은 소백산 자락이 아른거린다. 산 아래는 중생의 공간, 절 초입은 도를 닦는 불자들의 공간, 무량수전

이 자리한 곳은 부처의 세계로 여겼다는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친다. 이곳을 극락이라 칭한 이유를 단번에 알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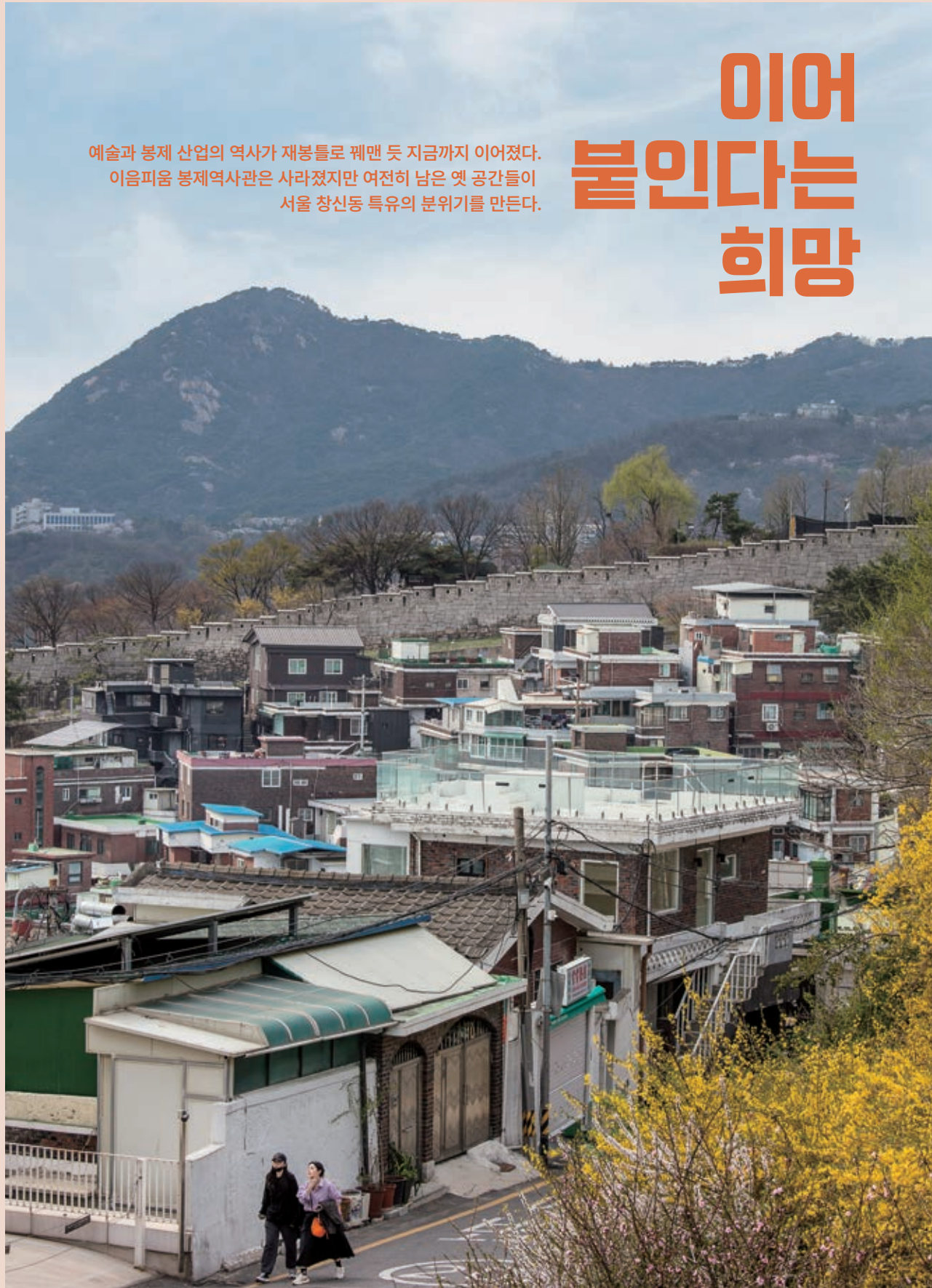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부석사는 설화뿐 아니라 국보 다섯 점, 보물 아홉 점도 보유했다. 미뤄 놓았던 무량수전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유려한 곡선이 도드라지는 팔각지붕, 고려 시대 공민왕이 썼다는 현판, 이름 높은 배흘림기둥까지 하나하나 뜯어본다. 여러 번 고쳐 신라 시대에 지은 그대로는 아니지만 1376년, 고려 시대에 세운 목조 건물을 현대인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치밀하고도 세심한 설계는 비단 무량수전에만 적용되지 않았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절을 구성하는 건물이 차례로 드러나도록 한 점, 위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범종루 지붕 후면을 맞배지붕으로 놓은 점 등이 부석

사를 더욱 빛나게 한다.

이제 마음을 경건히 하고 무량수전으로 들어간다. 한 걸음 내딛는 일조차 조심스러워 문지방을 넘을 때 괜히 호흡을 멈추었다. 살아 숨 쉬는 역사를 몸으로 감각하는 순간. 내부에서 황금빛 소조여래좌상과 마주한다. 아무 말 없는 불상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모으고 고개 숙여 예를 갖춘다. 차분하게 내려앉은 공기, 조용한 범당 안에서 그렇게 한참을 사색했다.

잡념이 사라져 한결 가벼운 몸을 이끌고 나와 팔각 석등 옆에 선다. 어느새 기울기 시작한 해가 타오르는 모습을 본다. 몇 번이고 무량수전을 비췄을 석양별이 나무 기둥을 살며시 어루만진다. 의상대사의 가르침이 여전히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듯 부석사는 내일도, 모래도 같은 자리에서 뜨고 지는 해를 맞이할 것이다. 16





예술과 봉제 산업의 역사가 재봉틀로 꿰맨 듯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은 옛 공간들이  
서울 창신동 특유의 분위기를 만든다.

# 이어 붙인다는 희망



창신동 봉제 공장의 24시간도 짧게나마 엿본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작업 주문과 원자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11시부터는 원단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로 분주하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인근 부자재 시장에서 재료를 구매해 하청 공장에 전달하는 시간이었다.

이곳 역사가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면 마냥 흥미롭지만은 않다. 1970년대 평화시장, 소녀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집이 가난해서 공장 '미싱기' 앞에 앉아야 했다. 하루 열네 시간 노동을 하며 받은 일당은 겨우 70원. 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679원이다. 이들이 부당함을 외쳤기에 현재 노동환경은 나아졌다. "언니 미싱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영화

동대문 평화시장을 중심으로 의류 도매가 이뤄지면서 창신동에 봉제 공장이 모여들었다. 1970년대엔 3000여 개가 성업했고, 지금도 일부가 남았다. 창신동 봉제거리 박물관은 공장들이 들어선 골목으로, 몇 개의 안내판에 봉제거리가 설명되어 있으니 유심히 살펴야 한다.

창신동에 전망 좋은 카페와 화려한 간판이 들어서고 있지만, 일부는 예전 그대로다.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길을 걷다 보면 점점 속도가 느려지니, 그 덕에 평범하고 낯선 장면을 천천히 둘러본다. 좁은 골목 사이로 펼쳐진 이 동네의 풍경이 색다른 즐거움을 안긴다.

## 봉제 공장을 스치는 소리

오토바이가 계속해서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린다. 교차하는 두 오토바이가 마치 손뼉을 치는 듯하다. 바쁜 일상이 펼쳐지는 골목, 봉제거리 박물관의 출발점을 알리는 마름모 형태 표식을 발견하곤 쪽 걸어가 보았다. 가정집과 비슷하게 생긴 봉제 공장이 양옆으로 줄지어 있는 이 골목을 봉제거리 박물관이라 부른다. 벽에 붙은 안내판이 낯선 봉제의 세계로 안내한다. 가까이 다가가 읽어 보니 '큐큐'는 재킷·코트 등에 사용하는 성냥개비 모양 단춧구멍을 가리키고, 일자형 단춧구멍은 '나나인치'라고 부른다 한다.





<미싱 타는 여자들>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대사다. 일도 권리 주장도 치열했을 그들의 삶. 자신의 재봉틀 소리에, 옆 친구의 재봉틀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보냈을 테다. 고된 환경에서 그 소리는 어쩌면 내 옆 사람이 살아 있음을 알리는 소중한 증거였을지 모른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세요?” 이 질문에 영화에 주연으로 등장한 ‘청계피복노동조합’의 미싱사 신순애 씨는 답했다. “빨간색이 가장 정열적이지 않나. 내가 최선을 다해 했으니까.” 그 뜨겁고 귀한 역사가 참으로 감사하다.

### 예술가를 기억하다

창신동 하면 떠오르는 두 명의 예술가가 있다. 박수근은 6·25전쟁 기간 미군 PX에 근무하며 초상화를

그려 번 돈으로 창신동의 작은 한옥을 사들였다. 가족과 12년 사는 동안 마루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는데, ‘판잣집’ ‘세 여인’ ‘아기 업은 소녀’ 등 그의 대표작 대부분이 이곳에서 탄생했다. 또 한 명의 예술가는 미디어아트 선구자 백남준이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세계 각지를 돌며 활동한 그는 1937년부터 1950년까지 유년 시절을 창신동에서 보냈다. 백남준 가족이 소유한 집터에 자리 잡은 가옥 중 하나가 2017년 백남준기념관으로 단장해 손님을 맞는다. 대문으로 들어서면 모니터에서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휘감아 오르는 형태의 붉은색 구조물이 존재감을 뽐낸다. 이 작품은 ‘다다익선’을 오마주해 백남준의 빛의 세계에 경의를 표하는 김상돈 작가의 ‘웨이브’다. 1003대의 브라운관 모니터로 구성된 원작과 달리 3000여 개의 투명 아크릴



**“난 사실 인생을 결정지은 사상이나 예술의 바탕은 이미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모두 흡수한 거거덩.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 예술가들 수준이 당대의 서구라파나 일본의 아방가르드적 수준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따우.”**



조각을 사용해 주변 환경을 투과하며 비춘다. 전시관을 거닐며 공간 한편에 키워드로 정리해 놓은 백남준의 생애를 통해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사유를 쫓아가 본다. 한국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으며 창의적이고 독특한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린 그이기에, 헤어진 유치원 친구를 보고 싶다고 했다거나 <춘향전>과 ‘심청가’를 보고 들었던 추억을 이야기했다는 일화에 기대했던 말을 들은 것처럼 반갑다. “난 사실 인생을 결정지은 사상이나 예술의 바탕은 이미 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모두 흡수한 거거덩.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 예술가들 수준이 당대의 서구라파나 일본의 아방가르드적 수준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따우.”

‘도시의 소리, 음악이 되다’라는 서사 패널 제목도 시선을 끈다. 이미지와 소리로 가득한 도시는 꼬마 백남준을 공감각의 세계로 인도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방적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창신동 집 안에서 어머니가 재봉틀로 옷을 짓는 장면은 그에게 일상이었다. 다채로운 소리는 어린 백남준의 내부에 쌓이고 쌓여 작품에 녹아들었을 것이다. 그의 피아노 사랑도 소개한다. 코끼리 같은 몸체에서 예쁜 소리를 내는 물체라 반했다는데, 그 아이는 훗

# 도시



날 피아노를 부수고 넘어뜨리는 퍼포먼스를 관객 앞에서 선보인다. 소리에 예민한 그는 글을 쓸 때도 리듬을 살렸다. “사랑아 사랑 사랑/ 사랑아 사랑 사랑/ 사랑아 달랑 달랑/ 사랑아 팔랑 팔랑/ 사랑아 갈랑 갈랑/ 사랑아 담방 담방/ 사랑아 빠각 빠각”. 1967년에 쓴 글 ‘뉴욕 단상’의 일부다. ‘사랑아’로 시작해 변주하는 구절이 입에 맴돈다. 꽃잎이 바람을 타고 천천히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수북한 낙엽을 밟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마지막 공간은 백남준을 기억하는 방이다. 미국 뉴욕 소호에 있던 백남준의 작업실 사진으로 벽면을 꾸며 사적인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 강하다. 그 앞에는 생전 작품 도구로 애용했던 오래된 TV와 컬러 바를 배치했다. 색동 천 자락이 드리운 모습은 가까이에서 자리한 컬러 바와 묘하게 겹쳐진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백남준이 무대에 올라 무반주로 춤사위를 선보이는 장면. 이내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송출된다. 수천, 수만

대의 TV에 오로지 그만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9분할, 16분할, 그 이상으로 쪼개져 무한히 상영될 것 같다. 짧은 상상을 마치고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대문을 나와 입구를 다시 한번 바라본다.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 무얼 기억해야 할지 즐거운 고민거리를 안고 더 높이 올라갈 시간이다.



# 재개발

## 탁 트인 전망이 주는 기쁨

구불구불한 골목과 가파른 계단, 창신동의 높은 지대를 올라 도심을 내려볼 때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골목 끄트머리에 자리한 황토색 건물이 바로 산마루 놀이터를 대표하는 ‘풀무골무’다. 지역 특성을 살려 골무 모양으로 세웠다. 그 안에 별집 모양의 정글짐이 우뚝 서 있고, 완만한 경사로가 정글짐을 휘감는다. 평일 낮이라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벽에 묻은 그들의 흔적은 훤히 봄 직하다. 그중 눈에 띄는 문구, “엄마 사랑해!” 6·25 전쟁 직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들은 오른손 검지에 낀 골무가 낡도록 바느질했다. 그 희생에 감사를 표현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이 흔한 문장이 유독 특별하게 다가온다.

아무리 바빠도 창신동에서 전망 구경을 빼놓긴 어렵다. 경사를 이겨 내고 채석장 전망대 위에 서니 서울 일대가 한눈에 보여 건물을 찾는 재미도 있을 터. 서울 지형을 잘 몰라도 저마다 다른 높이, 색, 형태를 지닌 건물과 거리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아파트와 주택 사이에 자리한 채석장, 외롭지 않게 노란 개나리가 곁을 지킨다. 반대편에 위치한 한양도성 성곽까지 한자리에서 이 모든 존재를 눈으로 음미한다. 이런 게 호사가 아닐까. 역사와 사람의 숨결이 생생한 창신동을 마주한다. 빠르게 허물어지고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는 곳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참 귀한 동네다. **K**

한양도성 낙산 자락에 위치한 창신동에는 채석장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건물 외장재로 석재가 필요했는데, 거리상 가까운 데다 질 좋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낙산은 재료를 공급하기에 용이했다. 깎고 허물어 서울을 세웠다.







# 작고 소중한 시네마 천국

걸어 다니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지만 우리에게 공간이 필요하다. 남다른 취향과 기발한 기획력으로 영화 팬에게 사랑받는 아지트 네 곳을 모았다.

## 서울 무비랜드

지난 2월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옛 날 영화 극장. 단 30석만 운영하는 상영관과 매점, 라운지로 단출하게 구성된 공간이다. 감각적인 콘텐츠로 주목받는 브랜드 디자인 회사 '모베러릭스'에서 운영하는데, 5월 초순에는 노동절을 기념해 극장 만드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중순부터는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선정한 영화를 선보인다.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5-5 @movieland.archive

## 충남 천안 노마만리

마정저수지의 풍광을 마주한 3층짜리 영화 책방 겸 카페. 한국과 북한의 영화사 연구자 한상언 대표는 선구적 평론가 김종원의 이름을 딴 김종원영화도서관을 건물 한편에 마련했다. 회귀 영화 도서와 정기 간행물이 빼곡한 이곳에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최초로 한국 영화사를 저술한 노만 선생의 <한국영화사> 발간 60주년 기념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금곡로 166 @nomamanri2022

## 강원도 강릉 무명극장

홍제동 주택가에 동지를 틈 이곳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 상영을 통해 단편영화의 힘을 알리고자 한다. 최대 5인까지 관람 가능한 다락방 시네마와 영화 모임 공간, 독서 이야기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강릉에서 제작한 단편영화 세 편과 영화제에서 큰 호응을 얻은 단편영화 일곱 편을 5월 상영작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강원도 강릉시 새생이길27번길 4 @mm\_movie

## 부산 무사이

그리스어로 '생각을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을 지닌 상호가 울림을 주는 이곳은 독립 영화관이자 영화 책방, 카페이자 모임 공간 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부산 지역 문화 예술계에서 활약 중이다. 책과 영화가 교차하는 흥미진진한 북 토크와 워크숍이 자주 열리는 데, 특히 셋째 주 토요일에는 부산 독립 영화 비평집 <인디크리틱>에 실린 작품을 상영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부산시 북구 산성로12번길 21 @mousai.official



# 시간을 넘는 고개, 대관령숲길

강원도 영동·영서 지방을 나누고 연결해 온 대관령숲길을 거닐며 푸른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마주한다.

강원도 강릉과 평창을 잇는 대관령. 이름 높은 고개에 자리한 대관령숲길은 선자령·오봉산·고루포기산 등에 걸쳐 약 103킬로미터 길이에 달하는 국가숲길이다. 길은 열두 개의 개별 코스와 이를 연결한 네 개의 순환 코스로 이루어진다. 예부터 '아흔아홉 굽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산세가 험한 대관령은 대굴대굴 구르는 고개라는 뜻의 '대굴령'에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험준하다 해서 마냥 두려운 공간은 아니다. 조선 시대 산골 사람들에게는 한양으로 가는 중요한 고개이자 삶의 애환이 서린 길목이었기 때문이다.

## 고개 넘어 만나는 이야기

과거 시험을 치르는 선비들이 오가며 자연스레 났다는 대관령옛길은 가벼운 등산을 원하는 이에게 제격이다. 국사성황사에서 출발하는 6.46킬로미터 코스로, 처음에는 오르막길이지만 이후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완만한 내리막길이 펼쳐져 초보자도 쉽게 걷는다. 강릉 성산면 어흘리 부근에 위치한 대관령소나무숲도 장관이다. 일제강점기에 과도한 벌채로 크게 훼손되었으나 소나무 종자를 직접 뿌려 가꾼 덕에 현재는 키 큰 소나무가 울창하다. 대관령소나무길 부근 남대천에서 여는 강릉 단오제에 가거나 대관령옛길에 위치한 어흘리마을에서 주인이 직접 빚은 생강나무꽃차를 마시는 것도 숲길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이다. 곳곳이 푸른 5월, 이제 신발 끈을 단단히 매고 대관령숲길로 향하자.



꽃황새냉이 *Carthamus amaraeformis*

5월에서 7월까지 대관령 산골짜기 냇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꽃이다. 무리 지어 자라며 줄기 곁머리에 흰색 또는 붉은 자주색 꽃이 핀다. 어린순은 식용으로도 쓰인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몸을 낮추어 바라본다.  
미술가 천경우의 감각을 빌려 잠시나마  
세상을 경청하는 시간이다.

# 천경우, 우리 시대의 경청자



# 경청자들



어떤 사람들은 귀가 아닌 눈으로, 마음으로 듣는다. 서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청각장애인 열여섯 명은 각기 다른 종소리의 크기와 음색을 상상하며 노래를 짓고 악보를 만들었다. 곡명은 '참 좋은 말'에서 '나의 피난처'에 이르기까지, 다정하고도 내밀한 삶의 풍경을 아우른다. 전시 공간에 옮겨 둔 악보는 관람객에 의해 여섯 개 종으로 연주되었다. 미술가 천경우가 2021년에 선보인 퍼포먼스·설치 작업 '가사 없는 노래 I'의 전말이다.

이 아이디어는 2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한 발짝 더 나아간다. 인도 남서부 고아 지역 어린이 합창단이 '가사 없는 노래 I'을 그들의 목소리로 해석하고 재현한 프로젝트 '가사 없는 노래 II'에 다다른 순간이다. 노래의 뜻을 명확하게 헤아릴 순 없어도 아이들의 신중한 표정과 말간 음색은 순식간에 공감각적 파동을 일으키고, 가슴을 일렁이게 한다. "청각 또는 시각이 부재한 이들은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활용해 인식하고 경험합니다. 우리가 감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상은 언제나 문자나 언어, 기호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텍스트와 이미지가 넘쳐흐르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듣고 어떻게 보아야 할까. 천경우의 근작을 망라한 전시 <경청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너그러운 응답이자 속 깊은 해답이다.

### 코로나 시대를 건너며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어두운 전시장 입구, 전시 개막일에 진행된 퍼포먼스 'Good. Story. Teller(굿. 스토리. 텔러)'를 기록한 영상이 온기를 퍼트린다. 20인의 참여자는 타인에게 들려줄 책을 작가에게 보낸 다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선택된 책을 낭독하고 혹은 경청한다.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이 모든 상호작용을 목도하는 또 다른 사람.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교감이 묘한 울림을 안긴다. 이 작품이 예고하듯, 천경우가 지난 3년간 지구 곳곳에서 발견하고 수집한 이야기들은 한목소리로 대면과 접촉의 대체 불가능성을 역설한다. 바이러스가 지구를 휩쓸기 시작한 2020년, 폴란드 노인 일곱 명이 생애 가장 특별한 기억을 구술함으로써 이루어진 프로젝트 작업 'Reminiscence(레미니스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물들의 표정과 걱정 어



평범하고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소통 방식과 자연 속에서 교감하는 인간의 모습을 포착한 <경청자들>전은 사진, 영상, 퍼포먼스, 설치를 아우르며 경청하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서울 플랫폼을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6월 23일까지 열린다. 문의 02-6929-4465



린 음성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유럽의 노인들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짧지 않은 고립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시도한 작업이에요. 이분들께 이야기할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한 2022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 모인 100명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이에게 스마트폰으로 연락해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뒤 그 얼굴을 지점으로 빔어 냈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100개의 두상 조각 '여행하는 얼굴'이 탄생했다.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타인과의 소통 방식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천경우는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도 다채로운 인물들이 소통을 시도하며 벌어지는 상황에 주목한다. "저는 우리가 지닌 솔직하고 연약한 부분을 숨김 없이



보여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고유한 소통 방식을 좋아해요.” 허위나 가식을 거둔 진솔한 몸, 순수한 태도에 주목한 그의 시도는 숲을 마주한 아이들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 연작 ‘Resonance(레조넌스)’로 이어진다. 앞서 언급한 ‘가사 없는 노래 II’의 시연자로 나섰던 어린이들이 숲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광경과 그 시간을 사진으로 축적한 것이다. 이 곡은 할머니에게 배운 인도 남서부 지역 소수 언어로 이루어진 구전 노래이며, 아이들의 가창은 ‘나무들을 위한 노래 #1 #2’라는 2채널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소리엔 귀 기울이지 않고, 잘 모르는 낯선 소리엔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제겐 두 가지 소리가 모두 중요해요. 바람 소리,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이야기 소리 같은 것들. 보이지 않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의미를 부여할지 고민했습니다.”

**귀 기울이면 밝아지는 것들**

경청이란 천경우가 지금껏 예술가로서 지켜 온 태도이자 미학이다. 일찍이 그는 카메라 너머 상대와 교감하는 과정을 사진에 담아내며 크게 주목받았다. “저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소년이었어요. 화실에 앉

아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길 좋아했죠. 그게 사진을 공부하게 된 이유예요.” 인물을 대면하고 사물을 마주하는 사진 매체의 즉물적 실감에 이끌린 그는 언제부터인가 명료한 재현을 넘어 ‘진짜’를 표현하고자 했고, 이미지를 완성해 가는 궤적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에 선보인 그의 초기작에 시간이 어른거리는 이유다. ‘Thirty-Minute Dialog(서티 미닛 다이얼로그)’ ‘One-Hour Portrait(원 아워 포트레이트)’ ‘Six Days(식스 데이즈)’... 짧게는 30분에서 한 시간, 길게는 몇새의 시간을 응축한 장노출 기법으로 포착한 인물들은 흔들리고 부유하는 듯한 모습으로 프레임 가득 메운다. 그리하여 이들은 고정된 피사체가 아닌, 기꺼이 움직이며 감응하는 존재가 되어 프레임 밖의 우리를 불러 세운다. “사진의 ‘모멘트’가 수백 분의 1초라면, 저는 시간의 두께를 이미지로 구현하려 했어요. 이런 작업을 통해 나와 대상의 관계,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로 이야기를 넓히기 시작했죠.” 사진에서 출발한 천경우가 퍼포먼스와 영상과 설치를 아우르는 개념미술가로 거듭나기까지 쉬지 않고 시도한 것이 바로 소통이다. 인물 간의 물리적 관계와 연대는 그가 오랫동안 몸을 낮추어 살뜰히 돌본 소재다. 독일 부퍼탈에서 사진을 공부하던 시절, 몸소 동료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며 삶과 예술의 저변을 넓힌



그는 소리와 음악을 새로운 질료로 받아들였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표현하는 사진 매체의 일방적 속성에 대한 회의감, 나아가 이미지의 효용에 대한 의구심에 사로잡힌 젊은 사진가에게 이러한 청각적 경험과 영감은 사진 바깥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탐색하게 했다. “소리와 이미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각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의존하느라 다른 감각들이 무뎠어지고 잊혀 가는 지금, 우리가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다시 <경청자들>의 전시장. 너른 숲을 떠오르게 하는 진녹색 벽에 새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다. 핀란드 헬싱키 앞바다의 새소리를 듣고 새의 형상을 상상해 그린 뒤,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는 참여형 프로젝트 ‘Bird Listener(버드 리스너)’다. 과연 새의 지저귐 위에 포개지는 하나의 얼굴이 있다. 가만히 경청하면 보이는 것, 천천히 응시하면 들리는 세계. 천경우가 일깨운 감각의 경로를 따라 오래도록 되새기고 싶은 풍경이다. **✎**

천경우는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사진과 퍼포먼스, 공공 미술, 설치, 영상 등으로 활동 반경을 확장했다. 그는 의식, 감정처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현상이나 존재 양식을 관찰하며 조형적인 형태로 이끌어 온 작가다.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하나 더 있다. 제주도 서귀포 포도뮤지엄이 내년 3월 20일까지 개최하는 <어쩌면 아름다운 날들>전에서 천경우는 관람객에게 눈을 감은 채 그림고 아름다운 얼굴을 그리도록 하는 프로젝트 ‘Most Beautiful(모스트 뷰티풀)’을 선보인다.



(왼쪽부터) 김승환 차장, 신동 차장, 박신흠 차장

## 레일을 누비는 새로운 희망, KTX-청룡

지난 4월,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서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이 공개됐다. 한국 철도 기술을 집약한 고속열차 탄생에 힘을 쏟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Q. KTX-청룡은 어떤 특징을 가진 열차인가요?** A.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260킬로미터인 KTX-이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고속 차량입니다.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로, 100퍼센트 국내 기술로 제작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최고 운행 속도는 320킬로미터, 최고 설계 속도는 352킬로미터에 달해 현존하는 한국 고속열차 중 가장 빠르지요. 기존 열차와 차별화하기 위해 차량 외관은 검정과 황금색을 조화롭게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청룡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가진 만큼 고객님께 새로운 희망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속차량처 신동 차장**

**Q. 이전 세대 열차인 KTX-산천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다른가요?** A. 가속과 감속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고 싶습니다. 이는 동력 분산식 열차의 장점이기도 하지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300킬로미터에 도달하는 시간이 3분 32초로, KTX-산천보다 1분 44초나 단축한 기록입니다. KTX-청룡은 8량 1편성, KTX-산천은 10량 1편성으로 이뤄지지만 두 차량의 길이는 비슷합니다. 좌석 수는 KTX-청룡이 136석 많아 수송 능력 또한 앞섭니다. 당연히 개발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고속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승차감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만든 빠르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다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어 뿌듯합니다. **고속차량처 신동 차장**

**Q. 새 열차를 도입한 이유가 있나요?** A. 2004년 등장한 한국 최초의 고속철도 KTX-1과 2010년에 도입한 KTX-산천은 모두 동력 집중식 열차입니다. 동력원이 맨 앞쪽과 뒤쪽의 차량에 위치해 열차를 움직이지요. 동력 분산식 열차보다 제작비는 저렴하지만, 비교적 급제동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2014년 철도 산업위원회는 한국 고속철도도 동력 분산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12월 계약 체결 이후 기술 개발, 차량 제작, 시운전을 모두 마치고 올해 드디어 KTX-청룡이 운행하게 되었네요. 수원-인천발 KTX와 평택-오송2복선 개통에 대비한 동력 분산식 열차 17대도 2027년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객계획처 김승환 차장**

**Q. 속도 관련 설비뿐 아니라 편의 시설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A. 객실에 들어서면 자리마다 있는 개별 창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1좌석 1창을 두어 모든 승객의 조망권을 확보했지요. 또 KTX-산천 대비 차체를 2.9미터에서 3.15미터로 높여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고, 각 좌석에 무선 충전기와 전원 콘센트, USB 포트를 설치한 데다 우등실에는 개별 VOD를 놓아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습니다. 앞 좌석과 무릎 사이의 거리도 주목할 만합니다. KTX-청룡은 126밀리미터로 KTX-산천 대비 20밀리미터 넓으며, 좌석 통로 폭 역시 KTX-청룡이 604밀리미터로 KTX-산천에

비해 124밀리미터나 넓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고속차량처 신동 차장, 여객계획처 김승환 차장**

**Q. 열차 운행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서울과 주요 역이 위치한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노선별 최단 루트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정차역을 최소화하는 급행 형태로 운영해 서울에서 부산을 2시간 10분대에 주파합니다. 주중인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두 번씩, 주말에는 경부선을 네 번 오갑니다. KTX-청룡은 2편성으로 계획했습니다. 주중에 1편성은 영업 및 운행, 1편성은 정비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금요일과 주말에는 두 편성을 연결해 1회당 최대 좌석 1030석을 공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존 KTX와 운임 체계가 동일하니 KTX-청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객마케팅처 박신흠 차장**

### + KTX-청룡을 타고 떠나고 싶은 여행지

차량본부 고속차량처 <b>신동 차장</b>	전남 여수로 가서 아름답다는 밤바다 풍경을 만끽하고 싶어요.
여객사업본부 여객계획처 <b>김승환 차장</b>	귀염둥이 쌍둥이 민수, 민서와 함께 전국 일주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객마케팅팀 여객마케팅처 <b>박신흠 차장</b>	부산으로 간 후, 동해남부선 전동 열차를 타고 부산 동쪽 바다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 + KTX-청룡을 소개합니다

KTX-산천의 뒤를 잇는 새로운 고속열차. 100퍼센트 국내 기술로 제작한 동력 분산식 열차로,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320킬로미터를 자랑한다. 가속·감속 성능이 우수해 역과 역 사이 거리가 짧은 한국 지형에 최적화됐으며, KTX-산천보다 넓은 좌석 공간과 개별 창 등으로 편의성까지 확보했다.



# Treasure of Korea



**깨달음을 찾는 모임**  
- 진천 영수사 괘불

화면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마주 본다. 깨달음을 얻은 존재인 석가모니불은 앞에 단정히 앉아 자신의 가장 뛰어난 제자 사리불존자에게 부처가 되는 법, 즉 성불하는 법을 전한다. 부처와 사리불존자를 둘러싼 많은 제자, 아라한, 보살, 천인들도 숨죽여 부처의 말씀을 경청한다. 보물 '진천 영수사 괘불'은 인도 왕사성 동북쪽 영산(靈山)에서 열린 석가모니불의 설법회 장면을 묘사한 불화다. 삼베에 얹은 색으로 채색했으며 세로 9미터, 가로 5미터가 넘는 커다란 화폭에 인물 140명을 담아 설법회 현장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했다. 괘불은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큰 불화로 평상시에는 보기 힘든 특별한 그림이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이 10월 13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이를 공개한다.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5월, 부처의 가르침이 펼쳐지는 영산의 모임에 함께해 보자.

**A Gathering of Enlightenment Seekers**  
- Hanging Painting of Yeongsusa Temple, Jincheon

Shakyamuni Buddha is imparting the method of enlightenment to his most outstanding disciple, Śāriputra. Many disciples, bodhisattvas, and celestial beings are also listening attentively. The *Hanging Painting of Yeongsusa Temple, Jincheon* depicts a scene of the Vulture Peak Assembly in India. Painted on hemp cloth, this large painting measures over nine meters tall and five meters wide. It is a special artwork used in outdoor rituals at temples, not often seen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This May, the month of Buddha's arrival, head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Buddhist Painting Gallery. The exhibition of hanging paintings runs through October 13.

© 성남문화재단연구원



# 여민동락 (與民同樂) 2024 수원 문화유산 야행

2024 SUWON CULTURAL HERITAGE NIGHT



2024.  
5.31.금 - 6.1.토  
18:00~22:00

화성행궁, 행궁광장,  
공방거리, 생태교통마을 일원



<실바니안 패밀리: 찾아라! 사랑스러운 아기 친구들>

1985년 첫 출시 이후 모든 연령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온 동물 가족 인형 시리즈 '실바니안 패밀리'를 책으로 만났다. 가족과 함께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두 그림을 자세히 살펴 서로 다른 곳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이 담겼다. 감쪽한 아기 친구와 눈을 마주하는 놀이 시간이 즐겁다. 고단샤 편집부 지음 서울문화사 펴냄

# Puzzle

editor. 남혜림

## 다른 그림 찾기

두 그림을 자세히 보고 서로 다른 곳 5군데를 찾아보자!



© EPOCH

\* 다음 표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되어요! 만만 찾아주세요.

\* 정답이 112쪽에 있습니다.

# 수학도둑

프로모션

수학도둑 100권 출간



책가방 속 든든한 수학 친구, <수학도둑> 100권 완간

여운방 수학 박사

## 수학과 친해지는 시간!

### <코믹 메이플스토리 수학도둑> 100권 출간

수학적 지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짜릿한 모험에 동참할 때다. 수학 학습 만화 베스트셀러 <코믹 메이플스토리 수학도둑> 100권이 탄생했다.

한국 최초 수학 논술 만화 시리즈 <코믹 메이플스토리 수학도둑>(이하 <수학도둑>)은 두 가지 편견을 가뻐히 비켜 간다. 만화가 단순한 재미 위주라는 것, 그리고 수학이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과목이란 것이다. 다시 말해 <수학도둑>은 입체적 이야기가 자아내는 즐거움, 흥미를 유발하는 수학적 지식으로 이루어진 흔치 않은 시리즈다. 첫 책을 출간한 2006년 이래 누적 판매 약 855만 부를 기록하며 학습 만화 베스트셀러 자리를 당당히 지켜 온 이유다.

#### 책가방 속 든든한 수학 친구, <수학도둑> 100권 완간

1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들의 수학 친구가 되어 준 <수학도둑> 시리즈가 100번째 책을 출간한다. 시스템수학연구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여운방 수학 박사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 스토리 작가 송도수의 매력적인 세계관, 서정엔터테인먼트의 화사하면서도 섬세한 그림체가 장장 100권에 달하는 수학적 모험의 세계를 완성했다. 재미는 물론 책의 가치를 알아본

눈 밝은 어린이 독자가 이 기나긴 여정에 힘을 더했음은 물론이다. 어린이 도서 분야에 큰 반향을 일으킨 <코믹 메이플스토리 오프라인 RPG>의 스피노프 <수학도둑> 시리즈는 주인공 도도의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도도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변신을 감행하다 두 개의 자아로 분리되는데, 여기서 둘 중 하나가 블랙홀에 빠져 수학도둑 세계를 탐험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즐거운 상상, 아름다운 우정, 멋진 용기와 도전으로 가득한 <수학도둑> 유니버스는 아이와 어른의 마음을 두루 사로잡는다. <수학도둑> 시리즈는 1단계 기본 편을 시작으로 심화·창의·종합·응용 편으로 체계를 갖추었으며, 매 권 워크북을 제공해 실전 풀이 능력을 함양한다. 수학의 본질에 충실한 콘텐츠와 스토리로 생각하는 힘을 훈련하도록 독려해 '수포자'와 '수잘알'의 기로에 놓인 어린이 독자를 깨달음의 즐거움으로 인도한다. 수학과 친해지고 싶은 이라면 이제 <수학도둑>과 함께 발맞추어 신나는 탐험을 떠나 볼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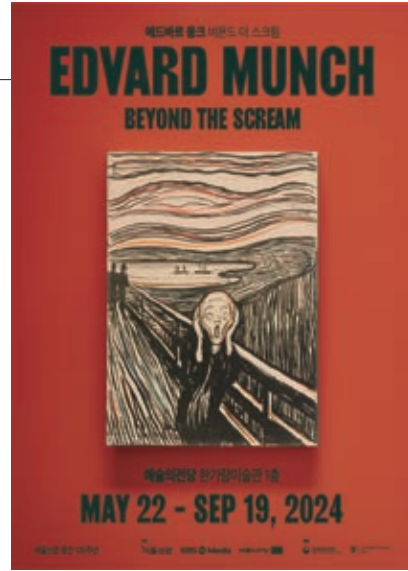
#### 교사, 전문가, 학부모가 <수학도둑>을 추천하는 이유

- “ 다양한 수학적 원리와 개념이 녹아 있어요. - 서울 금천초등학교 교사 이강숙 ”
- “ 아이의 수준과 입장에서 생각해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 <수학도둑> 콘텐츠 저자 여운방 ”
- “ 수학이 어렵지 않고 재미난 것이라고 알려 주는 학습 만화입니다. - 학부모 박은미 ”

# Culture

전시·시간

EXHIBIT



### <에드바르 뭉크: 비욘드 더 스크림>

인간의 근원적 불안과 고통을 '절규'로 표현한 불후의 예술가 에드바르 뭉크를 만난다. 뭉크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한눈에 조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로, 노르웨이 뭉크미술관과 미국, 멕시코, 스위스 등지의 23곳 소장처에서 공수한 140여 점을 아우른다. 작품을 연대기 형식으로 나열하는 데서 나아가 독특한 화풍과 실험적인 기법을 시도한 혁신가의 면모도 살피게 한다. **기간** 5월 22일~9월 19일 **문의** 02-2000-9497(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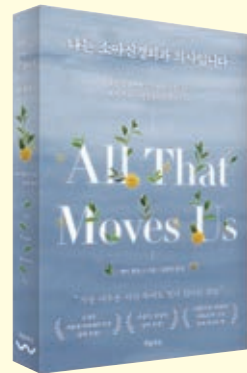
\*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에서 전시 초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미래 긍정: 노먼 포스터, 포스터 + 파트너스>

미국 보스턴 미술관, 스페인 빌바오 미술관, 아랍에미리트 자이드 국립박물관. 이들의 공통점은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빼어난 공공 건축물이라는 것, 그리고 건축 거장 노먼 포스터와 그가 창립한 건축 사무소 포스터+파트너스가 완성한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건축 모형, 드로잉 아카이브, 영상 등 전시물 300여 점을 통해 노먼 포스터와 포스터+파트너스가 견지해 온 비전과 사유를 엿본다. **기간** 7월 21일까지 **문의** 02-2124-8868(서울시립미술관)



BOOK



### <나는 소아신경외과 의사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다치고 생명이 꺼져 갈 때, 의사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심지어 저자는 아이의 뇌수술을 담당하는 소아신경외과 의사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아이, 척수 수술을 받는 미숙아 등 소아 병동에서는 날마다 생명의 사투가 벌어진다. 의사의 존재를 돌아보는 이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감동을 전한다. **제이 웰론스** 지음 **김보람** 옮김 **흐름출판** 펴냄



### <나의 장례식에 어서 오세요>

내 장례식은 내가 살아서는 볼 수가 없다. 평생시 죽음을 곱씹고 또 곱씹던 작가는 결심한다. 내년 생일에 자신의 장례식을 열기로. 수개월 동안 고민해 식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초대장을 보내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한다. 책에 이 모든 과정은 물론 방명록까지 담았다. 죽음을 생각하는 건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 일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보선** 지음 **돌베개** 펴냄



### <들꽃 수업>

세상이 만발하는 계절, 사람들은 꽃·나무와 함께 인생 사진을 찍는다. 다시 피어난 식물이 선사하는 위안이 얼마나 큰지. 부산의 고등학교 교사인 저자도 그랬다. 동네와 학교, 바닷가와 숲을 걸으며 식물을 만났다. 작고 여린 들꽃에 특히 마음이 갔다. 들꽃을 들여다보고 문학작품을 떠올리면서 삶의 지혜를 배웠다. 책은 그 수업의 기록이다. **심재신** 지음 **창비교육** 펴냄

## 피어나는 상상, 또 하나의 마법 마녀코믹스

대한민국 최강 만화 잡지 <아이큐점프>와 최고 순정 만화 잡지 <윙크>의 명성 그대로! '마녀코믹스'가 선사하는 신박한 재미와 진한 감동을 직접 느껴 보세요!



거대한 만화 세계를 경험하세요!

인생작 정주행은 '마녀코믹스'에서!

#코믹진 윙크

#첫 달 무료+보너스 몰약

#무제한 감상

#월 3,900원 무제한!

#10년치 인생 로맨스

#베스트셀러

#전편 연속 감상

#마코 독점 공개

#고품격 웹소설

#세상의 모든 로맨스

#이제 웹툰도 무제한!

마녀코믹스를 검색하세요!



회원 가입 시

3000원 상당 포인트(몰약) 즉시 지급!

마녀코믹스



# Culture

영상 콘텐츠·공연

MOVIE



**<목화솜 피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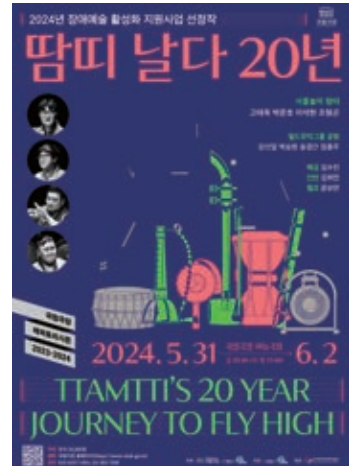
병호는 10년 전 참혹한 사고로 딸 경은을 잃고 기억을 점차 잃어 간다. 아내 수현 역시 무기력에 빠져 이를 외면한다. 묵묵히 견디던 첫째 딸 채은은 끝내 참았던 두려움을 토로한다. “아빠마저 잃을까 겁이 나.” 세월호 참사 10주기 영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세 가지 안부> <바람의 세월>에 이은 장편 극영화다. 5월 개봉.

감독 신경수 출연 박원상, 우미화



**<스텔라>**

1940년대 독일, 비극의 역사에 가린 실존 인물 스텔라 골드슈라크를 다룬 영화다. 스텔라는 재즈 가수가 되기를 꿈꿨지만, 홀로코스트에 휘말려 위태로운 생존을 이어간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월드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되었으며, 배우 플라비아가 파란만장한 삶을 산 스텔라로 분해 열연한다. 5월 개봉. 감독 킬리안 리드호프 출연 플라 비어, 야니스 니에브외너



**<천 개의 파랑>**

‘우리는 모두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메모 한 줄에서 출발한 천선란 작가의 소설 <천 개의 파랑>이 창작 가극으로 재탄생했다. 폐기될 처지에 놓인 휴머노이드 기수 콜리, 안락사 위기에 처한 경주마 투데이,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는 소녀 은혜 등 인물 간 연결 고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색했다. 연대의 가치를 담고 있는 따뜻한 공연이니 가족과 함께 관람해도 좋겠다.

기간 5월 12일~26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02-523-0986



**<땀띠 날다 20년>**

‘사물놀이 땀띠’는 서로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청년 연주자 네 명으로 구성된 국악 연주단이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활기차고 신명나는 창작 음악이 무대를 채운다. ‘월드뮤직그룹 공명’과의 협연 외에도 해금, 건반, 첼로 등 다양한 연주자가 함께하는 이 공연에서 각자 손에 전 악기로 세상의 문을 힘차게 두드린 20년 여정을 만난다. 기간 5월 31일~6월 2일 장소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 문의 02-383-7580



**<피아노 배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피아니스트 안드레아스 쾨과 폴 시비스가 피아노 두 대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2009년 홍콩 시티페스티벌을 위해 기획한 이 프로젝트 공연은 많은 나라에서 매진 기록을 세우고 5년 만에 돌아왔다. 라운드마다 각자의 스타일로 쇼팽, 드뷔시 등의 곡을 연주한다. 관객의 투표로 승자를 결정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공연은 5월 18일, 19일에 대구와 대전에서도 이어진다. 일시 5월 15일 오후 7시 장소 서울 롯데콘서트홀 문의 02-2658-3546

SH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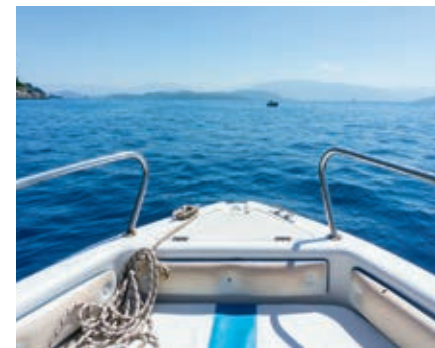
**진짜 부산에 반하다**  
**반할 부산**

BANHAL BU AN  
1인 최저가  
**169,000원**

**KTX 타는 순간 시작되는 여행**

**여행일** 2024년 05월~  
**포함 내역** 서울-부산 2인 왕복 KTX 기차비, 퍼블릭투어 요트 2인, 호텔 1박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개인 기타 경비  
**상품가** **169,000원**  
(2인 기준 1인 가격)



**WOW YACHTS PUBLIC TOUR**



※ 운항코스는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YOUNGMU PARADE HOTEL**  
**영무파라드호텔**

**체크인** 15:00 예약 날짜에 따라 객실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체크아웃** 11:00 [체크인 3시]  
금, 토요일, 공휴일, 공휴 전일, 연휴기간 [주차]  
1박 1대당 10,000원 (출차 시 별도 결제)



디럭스 더블 하프 오션뷰



디럭스 더블 오션뷰

DELUXE Double

\*기차 시간, 일정 변경 및 인원 조정 문의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수기로 인해 예약 날짜에 따라 객실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중 요금으로 이의 일정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차 운행 조정, 기차 잔여좌석 사정으로 인해 기차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추천해 드리는 자유여행으로 여행자의 편의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차여행 패키지입니다.

**KTX 공식 협력 여행사** **카톡채널상담 '기차여행센터'** **전화문의 1899-2550**



# Letters from Readers



##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 강화라는 꽃

<KTX매거진> 4월호에 실린 인천 강화 여행 기사가 너무 반가웠어요. 인천에 살지만 아직 강화를 방문해보지 못했거든요. 강화의 매력이 생생히 전해지는 기사를 읽고 드디어 여행 계획을 짜는 중입니다.

한혜경 인천시 부평구 주부토로



### KTX처럼 달려온 20년

KTX 개통 20주년을 기념한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한국 최초의 고속열차 기관사 이일호 팀장님의 인터뷰가 인상적입니다. 이런 분의 노력 덕에 빠르고 편안한 여행이 가능한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나 전남 나주시 우정로

###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mailto: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5월 15일입니다.

## 기차로 여행하면서



KTX의 스무 살 생일을 맞아 케이크를 그렸습니다. 고등학생 때 뉴스로 KTX 개통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이 엄마가 되었네요. 철도를 사랑하는 아들과 자주 기차 여행을 합니다. 그 여정에 <KTX매거진>이 항상 함께예요!

유예지 세종시 노을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수암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세븐데이즈클린 인슐루션'을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가르시니아카ம்பोज이아 추출물에 담긴 HCA 성분이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물에 녹여 섭취하는 제품이며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좋습니다. 파인애플소다 맛으로 시원함과 상큼함을 더했습니다.



# Information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 098 코레일 소식
- 106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08 열차 이용 안내
- 110 비상시 행동 매뉴얼





### 제36차 국제철도연맹(UIC) 아태지역총회 개최



한국철도공사가 4월 3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 36차 UIC 아태지역총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프랑수아 다벤느 UIC 사무총장을 비롯해 4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철도의 안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 KTX-청룡 국민 시승 행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KTX-청룡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 일반 참여자와 다자녀 인증을 받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선착순으로 탑승자를 선정해 총 1200명이 열차에 올랐다. KTX-청룡은 5월 1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 어르신 대상 '디지털 스쿨' 시행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이 4월 17일 대전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키오스크 사용법을 안내하고,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디지털 스쿨 활동을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강철교 구조물 및 선로 안전 관리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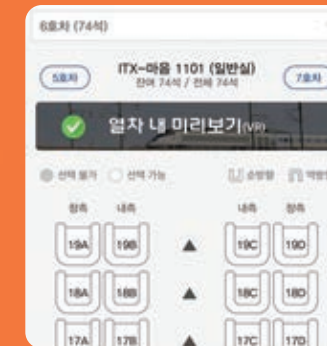


4월 11일 오전, 한국철도공사가 서울 한강철교에서 철도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을 점검했다. 주요 시설을 살피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열차 접근 경보 시스템과 LED 점검 표지 등 보호 장비 확인 및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강철교는 하루 1000회 이상 열차가 운행하는 한강 최초 철도교다.

이용할 열차 내부 모습을 코레일톡에서 미리 만나 보세요

## VR 시트맵으로 나에게 딱 맞는 좌석 선택

한국철도공사가 2월 29일부터 코레일톡에서 VR 시트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용할 열차를 선택한 후 하단의 '좌석 선택'을 터치하면 시트맵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열차 내 미리보기'를 터치하면 VR 시트맵이 활성화되어 편하게 열차 내부 모습을 둘러볼 수 있다. 좌석 번호별 위치뿐 아니라 충전 콘센트, 화장실, 수유실 등 각종 편의 시설 위치까지 제공하므로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코레일 X 경상북도

# 반하다! 경북 시즌 2

2024. 4. 1~예산소진시 마감

\*승차일 기준 4. 15.부터 이용가능!



신나는 경북 여행 떠나고!

관광지 인증샷 찍고!

짜릿하게 지원 받자!



세부 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해주세요.

##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 고객의 편지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입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일정을 마치고 오후 3시 1분 서울행 KTX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찾던 중 면도칼에 손을 베었고, 피가 멈추지 않아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병원 대신 부산역 유실물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청했더니, 직원 두 분이 긴급 처치를 해주셨습니다. 쉽게 지혈이 되지 않아 당황했지만, 유실물 센터 일이 아님에도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처해 주신 덕분에 마음이 놓인 기억이 납니다. 환볼 처리까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직원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 부산역 장혜영 역무팀장, 박애정 역무원

부산역에서 근무하는 역무팀장 장혜영, 역무원 박애정입니다. 다친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고객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을 고객님의 생각에 얼른 구급 상자를 가져와 지혈했고, 대화를 나누며 상처의 깊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닐지 걱정했지만 소독과 지혈을 반복했더니 다행히 피가 멎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저희를 믿어 주셔서 감사하고, 잘 회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이 한국철도공사를 믿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레일을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젠가 알려주세요.



★ KTX순천교통대전 특가상품 ★

- ★ 당일상품 : KTX 왕복 50%할인 + 시티투어 테마별
- ★ 1박 2일상품 : KTX 왕복 50%할인 + 호텔
- ★ 1박 2일상품 : KTX 왕복 50%할인 + 렌터카

우주인 특별혜택

<p>KTX 왕복 50%할인 KTX 44,000원 22,000원 (편도 용산 기준)</p>	<p>숙박 1인 2만원 지원</p>	<p>렌터카 1인 1만원 지원</p>
--	-------------------------	--------------------------



QR코드  
세부 내용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판매처 :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코레일톡



KORAIL SNS



KTX-청룡을 소개합니다\_시속 320킬로미터급 차세대 고속열차 KTX-청룡이 5월 1일 운행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열차를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한국철도공사 홍보대사로 가수 영탁 위촉 "내가 왜 거기서 나와~♪" 한국철도공사 홍보대사 위촉식에 가수 영탁이 나타났대! 그뜨거운 현장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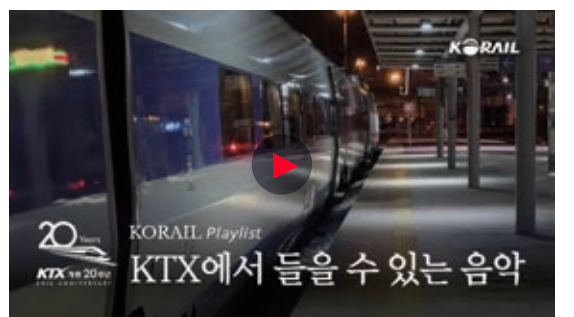
로봇 쓰는 KTX 정비 기지\_시속 300킬로미터로 달리는 KTX가 안전한 이유,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의 꼼꼼하고 철저한 정비를 공개합니다.



극한의 유실물 센터 체험\_하루 20~30건의 유실물이 들어온다는 곳, 역내 유실물 센터입니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부경전선 무궁화호를 아시나요?\_순천역에서 광주송정역을 오가며 랜선으로 여행하기. 유익한 정보도 함께 얻어 가세요.



KTX 플레이리스트\_KTX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과 함께 상상 속 기차 여행을 떠납니다. 언제 어디서든 KTX에 올라탄 기분을 느껴 보세요.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부산관광공사

## 바다의 정수를 느끼는 시간, 부산행 해양대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탁 트인 바다를 보고 싶은 순간, 부산으로 향한다. 한국철도공사, 부산시, 부산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부산행 해양대전'과 함께 요트, 서핑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태종대, 흰여울문화마을을 포함해 부산의 주요 관광 명소를 여행할 기회다. KTX 60퍼센트 특별 할인까지 제공하는 이 기획전에 소개된 상품은 소진 시 판매 종료하기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면 서둘러 것. 이용 후 설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부산행 KTX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놓치지 말자. 파도 소리 들으면서 걱정을 날려 버릴 시간이다.

### 부산행 해양대전

**예 약**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  
**문 의** 051-440-2513(부산역 여행센터)



© 밀양문화관광재단

## 제66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볕 아래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아름다운 선율, 희망의 울림'을 주제로 돌아온 '밀양아리랑대축제'는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더욱 기대를 모은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영남루와 밀양강 일대에서 밀양 아리랑 토크 콘서트, 아리랑 가요제, 불씨 봉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화려한 멀티 미디어와 더불어 실경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되는 '밀양강 오딧세이'는 놓치기 아쉬운 공연이다. 축제 기간 동안 경상남도,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두고두고 경남 여행' 프로모션에 참여할 시 선착순으로 KTX 2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 두고두고 경남 여행

**참여방법** 경남 외 지역에서 기차 타고 축제 방문 → 축제장에서 사진 찍기 → 밀양시에서 1만원 이상 소비하고 영수증 챙기기 → 프로모션 참여 링크에 승차권, 사진, 영수증(총 3개) 업로드 → **KTX 2만원 쿠폰(축제 종료 1개월 이내 코레일 멤버십 회원번호로 발급, 1인 1매)**

**예 약**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  
**문 의** 051-440-2513(부산역 여행센터)



## 편의 시설

###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 간격 Seat Space</p>  <p><b>KTX</b> <b>930mm</b></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 &amp; USB 포트 Socket &amp;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 특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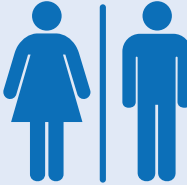







First Class Service

<p>좌석 간격 Seat Space</p>  <p><b>KTX</b> <b>1120mm</b></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b>KTX 3, 4호차</b>와 <b>KTX-산천 4, 14호차</b>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b>KTX</b> <b>3, 4호차</b>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p>  <p>단행본은 <b>KTX 4호차</b>와 <b>KTX-산천 3, 13호차</b>, 잡지·신문은 <b>KTX 3, 5호차</b>와 <b>KTX-산천 3, 13호차</b>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 AMENITIES

###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b>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b>와 <b>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b>와 <b>KTX-이음 1, 6호차</b>와 <b>ITX-새마을 1, 4, 6호차</b>와 <b>ITX-청춘 3, 6호차</b>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b>KTX 2호차</b>와 <b>KTX-산천 1, 11호차</b>와 <b>KTX-이음 3호차</b>와 <b>ITX-새마을 3호차</b>와 <b>ITX-청춘 3호차</b>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b>KTX 8, 16호차</b>와 <b>KTX-산천 4, 14호차</b>와 <b>KTX-이음 4호차</b>와 <b>ITX-새마을 6호차</b>와 <b>ITX-청춘 6호차</b>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b>KTX 4, 10, 15호차</b>와 <b>KTX-산천 4, 14호차</b>와 <b>KTX-이음 3호차</b>와 <b>ITX-새마을 3호차</b>와 <b>ITX-청춘 3호차</b>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b>KTX 5, 9, 11, 13, 16호차</b>와 <b>KTX-산천 2, 6, 12, 16호차</b>와 <b>KTX-이음 3, 4호차</b>와 <b>ITX-새마을 3, 4호차</b>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ITX-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료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 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5분, (T2↔광명역) 약 8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터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 (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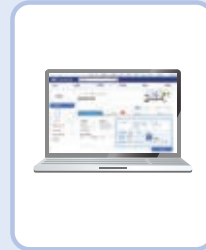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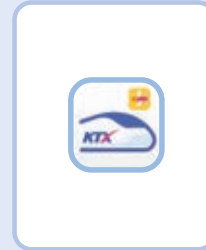
## 열차 이용 안내

###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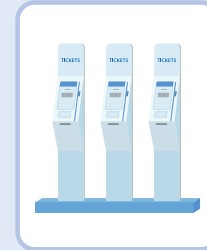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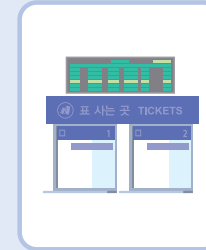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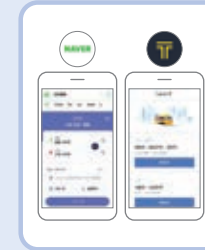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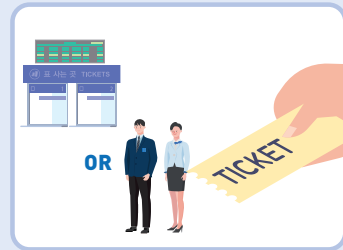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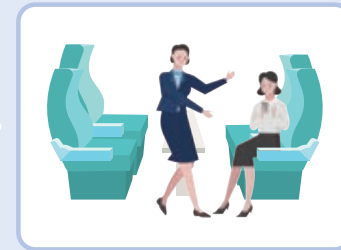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 PASSENGER GUIDE

###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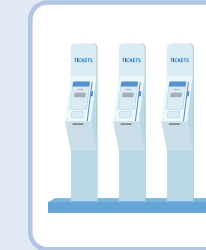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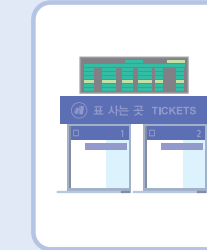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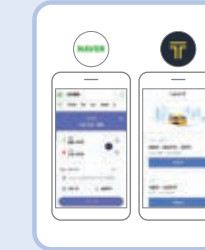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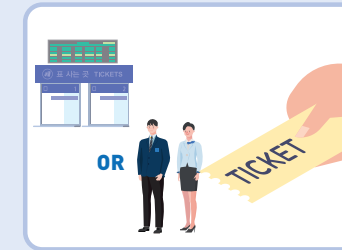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 · KAKAO T  
Mobile App

###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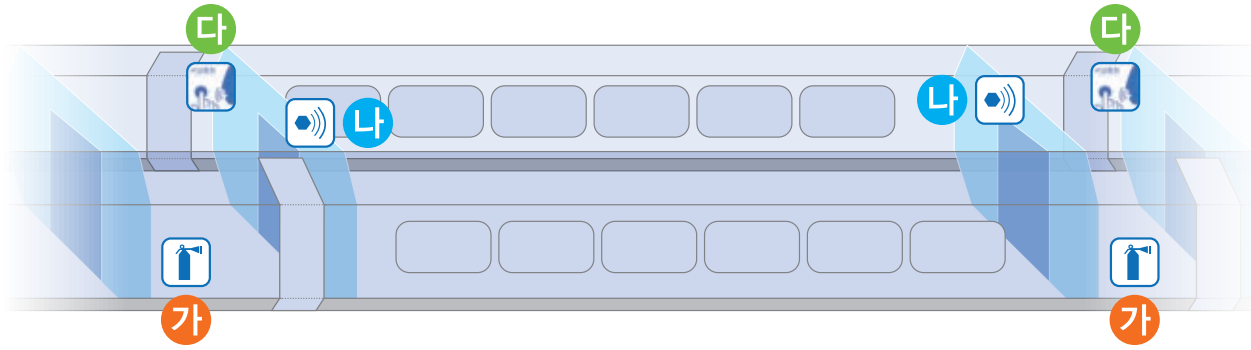
###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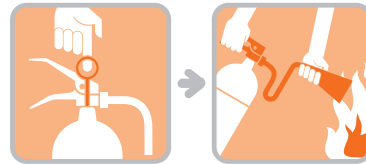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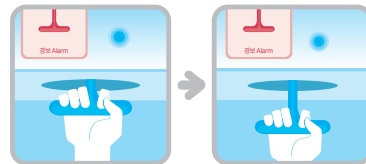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1.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2.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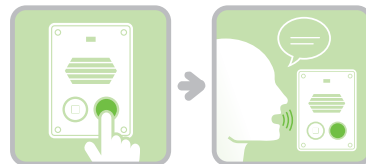
1.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2.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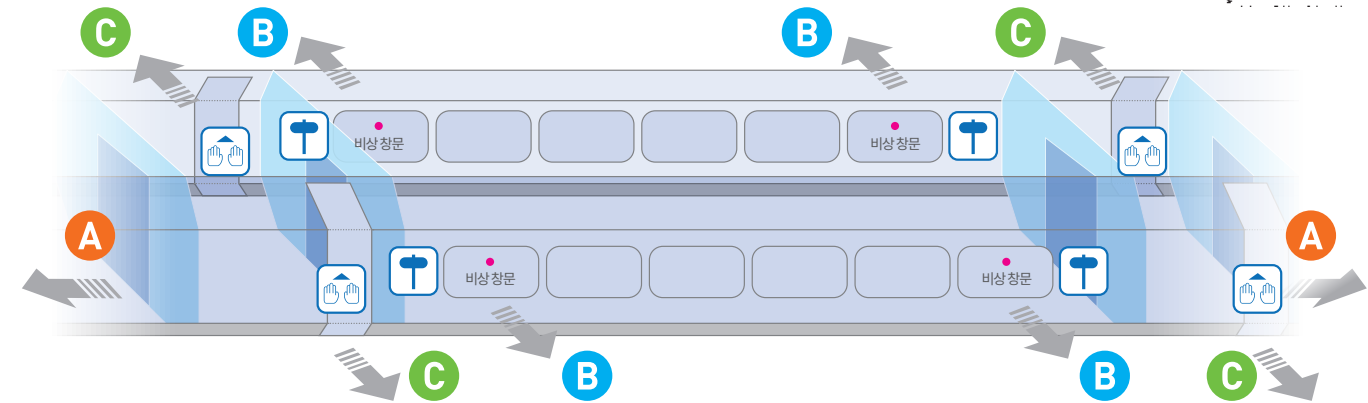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1.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2.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향촌

1.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2.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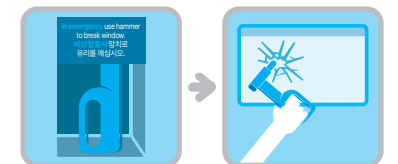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1.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2.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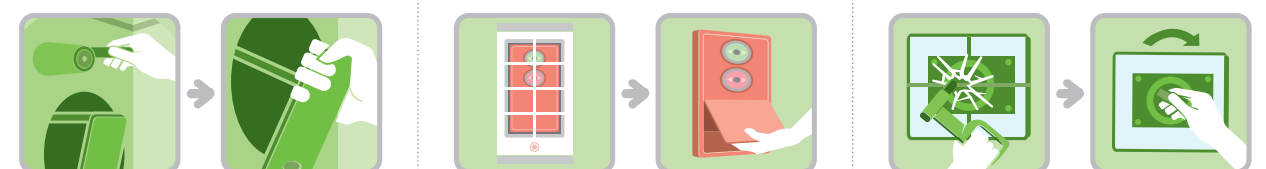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2.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1.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2.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향촌

1.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2.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 Epilogue



### '최애' 컬렉션에 박물관을 또 하나 추가하며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 세 분 부처님을 마주치자마자 뺨 터졌다. 킁킁 소리 들릴 듯한 표정과 포즈가 예술이다. 소장품 번호를 키오스크에 입력하고는 한 번 더 놀랐다. 이 불상이 미국에서 왔다니! 악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며, 말하지 않는 부처의 세 가지 모습을 담았다 한다. 모든 걸 내려놓고 초월해 웃어넘기시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의도가 심했구나... 박물관은 이치럼 웃음 나오고 반갑고 사랑스러운 유물 천지다. 최고의 예술품은 아닐지언정 평범한 삶이 녹아 있어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수장고에 들어가는 경험은 특별했고, 정보를 키오스크에서 직접 검색하는 즐거움도 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합쳐져야 역사가 된다. 역사는 모두가 함께 만드니까. 눈부신 5월에 광주민주화운동, 그 밖에 수많은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김현정**



### 기쁘다 5월 오셨네

드디어 5월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이 4월이라 아직 실감할 순 없어도, 1년 내내 기다린 5월이 왔다. 올해는 노동절과 대체공휴일과 부처님 오신 날이 적절히 분포해 일명 '주 4일제 체험판'이라며 환영하는 이가 많은데, 실은 기다림의 이유가 휴일에만 있진 않다. 온화하고 바삭한 5월 날씨를 사랑한다. 5월의 별은 거친 인생도 살아 볼 만하다며 긍정의 힘을 불어넣곤 한다. 그리하여 5월은 축제의 계절. 이맘때면 전주국제영화제를 핑계 삼아 전북 미식 여행을 궁리하곤 했으나, 이번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아트부산 2024를 중심에 둔 여정을 계획 중이다. 무엇보다 5월은 나라는 미미한 존재가 감사하게도 세상 빛을 본 달. 5월의 아이로서, 5월의 눈부신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사진은 영주 희방사역의 희망찬 5월 한때. **강은주**

### 잠시 아래를 보세요

숲을 걸을 때 아래를 바라보고는 합니다. 무성한 풀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요. 민들레, 개망초, 최근에는 도심에서 가로수 아래 핀 제비꽃을 만나기도 했네요. 숲에서는 더 다양한 녀석들과 마주칩니다. 쫓르르 달려가는 다람쥐라도 보는 날엔 '오늘 운이 좋구나!' 하고 생각해요. 경북 영주 봉황산에 자리한 부석사에는 유난히 꽃이 많이 피었어요. 목련 향이 그렇게 그윽한지 몰랐고, 가장 좋아하는 봄꽃 개나리가 잔뜩 있어 기분이 들뻔쥬.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청취하신 독자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ㅎㅎ) 조사당까지 들렀다 내려가는 길, 쫓그러 앉아 고양이 한 마리를 찍다 문득 둘러보니 다섯 마리가 더 나타나 어슬렁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몸을 낮춰야 보이는 녀석들이 활발히 활동할 때네요. 그러니 잠시 아래를 보세요! **남혜림**

### 우아한 발견

시와 번역, 베일에 싸인 두 존재가 만났다. 번역가의 목소리를 잘 담아 보고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퇴근길에 팟캐스트를 듣고. 번역 또 번역. 번역가는 작가에 비해 매체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어서인지 새로 알게 된 이야기가 더욱 반갑고 흥미로웠다.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의 첫 관람객이 된 기분이 들었다. 별 아래에서 커피 한 모금과 시 한 문장을 넘기는 순간, 어떤 날갯짓을 봤다면 그것은 '환상'일까? 그동안 다중 언어에 대한 욕심은 없었는데, 좋아하는 시의 번역본을 나란히 놓은 채 낯선 아름다움에 전율을 느끼고 싶어졌다. + 제목은 번역가 안톤 허의 에세이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프롤로그 속 문장에서 출발했다. "비록 그것이 우아한 기록은 아닐지라도." 글썽, 번역이라는 세계로 향할 때 우아함을 목격한 것 같다. **김수아**

### Puzzle

90쪽 '떠돌' 정답



Crazy Car Wash Crew<sup>©</sup>

SPRING SUMMER SEASON COLLECTION